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敎育學碩士學位論文

2세기 말 로마제국의 위기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정책의 도미나투스적 성격

2017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敎育科 歷史專攻

최 윤 제

2세기 말 로마제국의 위기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정책의 도미나투스적 성격

指導敎授　金 悳 洙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10**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敎育科 歷史專攻

崔 允 齊

崔允齊의 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7年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18세기 역사가 기번은 오현제 시대 이후의 로마제국을 “쇠망”으로 규정하고,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원로원과 군대정책이 3세기 후반의 군인황제시대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이후 20세기 후반까지도 세베루스의 시대를 이해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고학의 발달과 다양한 비문헌자료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세베루스와 그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이른바 ‘3세기 위기’에 대한 재평가 역시 세베루스 시대를 새롭게 규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세베루스가 시행한 정책들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집권할 당시 로마제국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세기 말 역병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변경위기 등으로 인해 로마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소 위축되어 있었다. 게다가 코모두스의 암살과 193년 내전으로 원로원과 근위대, 속주군단의 세력균형이 와해되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또한 내전 과정에서 속주도시들의 주체적 동향과 분열 양상이 두드러졌다.

본고는 세베루스의 정책이 2세기 말 로마제국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세베루스가 실시한 원로원 약화정책은 단순히 정권유지의 목적만이 아니라, 이미 2세기 말 정치적 혼란기에 무능을 드러낸 원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세베루스는 단순히 원로원을 탄압하는 것이 아닌, 기존 원로원의 권력을 황제자문회의와 근위대에 이양하는 방식을 택했다. 황제 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치세력을 개편하여, 정치적 불안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제적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제권 강화와 혈통적 계승체계 안정을 위한 프로파간다가 나타났다. 이는 세베루스 시대 각종 주화와 부조의 도상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주경영에서 나타난 직접지배의 경향 역시 국가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내전 중에 대두된 속주와 속주민의 성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세베루스의 군대정책이 기존 연구에서는 정권유지 혹은 국경방어체제의 강화로 이해되어 왔으나, 근위대를 속주군단에서 충원하고,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치는 속주통합과 속주민의 생활안정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세기 말의 로마제국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했던 세베루스의 정책으로, 그의 재위기와 세베루스 황조 시대인 3세기 전반에 로마제국이 안정될 수 있었다. 또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세베루스 정책의 전제적 성격들이 이후 4세기 도미나투스체제 성립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193년 내전, 로마제국의 위기, 세베루스 정책, 3세기 위기

학 번 : 2009-23408

목 차

Ⅰ. 序言 ····· 1

Ⅱ. 2세기 말 가시화된 로마제국의 위기 양상

1. '3세기 위기' 신화와 2세기 말 제국의 경제상황 ····· 10

1) '3세기 위기' 인식의 변화와 세베루스 정책의 재평가 ····· 10

2) 2세기 말 로마제국의 경제위기 ····· 17

2. 코모두스의 암살과 정치세력 갈등의 부상 ····· 21

3. 193년 내전과 속주의 주체적 동향 ····· 30

Ⅲ.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지배체제 개편과 도미나투스적 경향

1. 원로원의 약화와 원로원 권력의 이양 ····· 34

2. 황제와 황가의 신성화와 전제적 이미지 구축 ····· 49

1) 제위와 연계된 리베르 파테르-헤라클레스-유피테르의 위계 구축 ····· 50

2) 황가의 신성화 ····· 56

3) 제호(帝號)로서 '도미누스' 사용의 증가 ····· 59

3. 속주경영에서의 직접지배 강화 ····· 63

Ⅳ. 結語 ····· 69

참고문헌 ····· 73

Abstract ····· 83

표 목 차

[표 1] 1~3세기 원로원의원의 출신지역 ····· 40
[표 2] 세베루스 시대 군단사령관의 계층별 구성 ····· 47
[표 3] 69~235년 속주 비문의 제호 비교 ····· 60

그 림 목 차

[그림 1] 사자 가죽을 쓴 세베루스 메달 ····· 50
[그림 2] 사자 가죽을 쓴 코모두스 데나리우스 ····· 50
[그림 3] 헤라클레스-리베르 파테르 아우레우스 ····· 51
[그림 4] 리베르 파테르 단독 데나리우스 ····· 52
[그림 5] 헤라클레스 단독 데나리우스 ····· 52
[그림 6] 백년제(204년) 기념 아우레우스 ····· 53
[그림 7] 유피테르 데나리우스 ····· 55
[그림 8] 세베루스 황가 아우레우스 ····· 56
[그림 9] 세베루스 개선문 개선식 부조 ····· 57
[그림 10] 세베루스 개선문 세베루스와 율리아 돔나 부조 ····· 58

Ⅰ. 序言

'팍스 로마나(Pax Romana)'의 시기로 불리는 오현제(五賢帝)의 시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Antoninus, 재위 161~180년)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의 아들 코모두스(Lucius Aelius Aurelius Commodus, 재위 180~192년)가 암살된 이후 페르티낙스(Publius Helvius Pertinax, 재위 192~193년)가 황제로 추대되었다. 하지만 그 역시 근위대에게 암살당했고, 이후에는 경매라고 비유될 만큼 천박한 방식으로 율리아누스(Didius Julianus, 재위 193년)가 제위에 올랐다. 근위대에 의해 제위가 좌지우지되는 수도에서의 난맥상은 속주군단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판노니아(Pannonia), 브리타니아(Britannia), 시리아(Syria)의 총독이 각각의 군단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고 내전을 동반한 제위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판노니아 총독 셉티미우스 세베루스(Lucius Septimius Severus, 재위 193~211년)가 승리하여 세베루스 황조(193~235년)를 열었다.

세베루스 황조는 로마제정기에서 볼 때, 오현제의 안정기와 군인황제시대(235~284년)의 혼란기 사이에 위치해있다. 그리하여 세베루스 황조에 대한 평가는 3~4세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세베루스 황조를 개창한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에 대한 평가 역시 후기 로마제국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져왔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18세기 역사가 기번(E. Gibbon)의 평가에 기인한다. 기번은 『로마제국쇠망사(*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에서 세베루스가 원로원을 약화시키고, 군대를 강화시킨 정책이 결과적으로 로마제국의 쇠망을 초래했다고 평가하였다.[1] 기번은 세베루스의 군대정책이 내전에 협조해준 군인들에 대한 호의일 뿐이며,[2] 원로원 약화 정책 역시 세베루스의 오랜

1) E. Gibbon,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1(1737-1794.)*(New York, 1990), p. 111.
2) *Ibid.,* p. 107.

군인경력 때문이라고 보았다.[3]

19세기에도 기번의 관점이 유지되었다. 부르크하르트(J. Burckhart)는 세베루스를 최초의 군인황제로 이해했다.[4] 끌르니에(A. de Ceuleneer)는 세베루스가 아우구스투스(Octavianus Gaius Julius Caesar, 재위 기원전 29년~기원후 14년)의 이원체제(Dyarchy)[5]를 복원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Gaius Aurelius Valerius Diocletianus, 재위 284~305년)의 전제정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평했다.[6]

비슷한 시각에서 20세기 초 로스토프체프(M. Rostovtzeff)는 세베루스조를 "군사전제정(military monarchy)"으로 명명했다.[7] 이후 그랜트(M. Grant) 역시 세베루스조를 군사전제정으로 이해하고, 군사전제정은 황제가 원로원이나 다른 제국의 기구에 의지하지 않고 군인들을 통해 지배하는 체제라고 규정했다.[8] 그랜트는 세베루스가 오로지 군대의 힘으로만 제위를 차지했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군대에 과도한 힘을 부여한 세베루스의 정책이 235년 이후 군인황제의 혼란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로스토프체프나 그랜트의 세베루스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되듯 세베루스가 3세기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기번의 시각이 20세기 후반까지도 유지되었다.

세베루스 시대와 관련된 문헌사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도 그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당대에 쓰여진 역사기록은 그리스 출신 역사가인 카시우스 디오(Dio Cassius Cocceianus)와 헤로디아누스(Herodianus)의 기록이 있다. 두 사가(史家) 모두 세베루

---

3) *Ibid.,* p. 109.

4) J. Burckhardt, *The Age of Constantine the Great(1853),* M. Hadas, trans.(New York, 1989), pp. 19-20.

5) 몸젠은 아우구스투스가 확립한 프린키파투스 체제를 황제와 원로원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이원적 지배 체제로 파악했다.(T. Mommsen, *A history of Rome under the emperors(1882-6),* C. Krojzl, trans.(New York, 1996), p. 363.)

6) A. de Ceuleneer, *Essai sur la vie et le règne de Septime Sévère(1880)*(Whitefish, Montana, 2009).

7) M. Rostovtzeff,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roman empire*(Oxford, 1926), p. 393., 그는 또한 235년부터 284년까지의 군인황제의 시기는 "군사적 무정부시대(military anarchy)"로 파악했다.

8) M. Grant, *The Severans : the changed Roman Empire*(London, New York, 1996), p. 3.

스와 동시대를 살았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갖지만, 둘은 모두 그리스 출신이면서, 디오의 경우 원로원의원으로서의 관점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9] 한편 헤로디아누스의 기록은 디오의 것과 비교할 때 세부사실의 오기 등으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10] 4세기에 편찬된 『황제사(*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역시 세베루스의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과장된 묘사와 오기 등으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된다.[11] 즉 당대인의 다양한 시각을 풍부하게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세 문헌사료에 나타난 세베루스에 대한 서술이 기번 이후 역사가들의 시각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940년대 이후 고고학의 발전에 힘입어 각종 비문, 주화와 부조 등 다양한 비문헌자료에 대한 연구들이 보완되면서 세베루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해먼드(M. Hammond)와 반스(T.

---

9) 디오가 로마의 건국부터 서기 229년까지를 다룬 *Historia Romana*에 세베루스와 관련된 초록과 단편들이 남아있다. 디오는 특히 세베루스의 황제자문회의의 구성원이었을 정도로 황제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세부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한 편이다. 하지만 그리스출신이면서 원로원의 일원이라는 배경이 강하여 투영되어 있다. 헤로디아누스의 기록이나 4세기 『황제사』에는 나타나지만 디오의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은 대부분 원로원의 치부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 예로 헤로디아누스와 『황제사』는 내전 중에 알비누스파 원로원들이 적극적으로 공작을 펼친 것으로 기록했지만, 디오는 대부분이 중립을 지켰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을 선포하는 등 기존 원로원의 역할을 세베루스가 군단에 일임하는 부분 역시 누락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세베루스 사후 제국분할을 논의하는 장면 등 황제자문회의의 활약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그런가하면 군대정책에 대해서는 세베루스의 정책으로 군대기강이 해이해지고, 야만화가 진행되었다고 폄하하는 등 부정적인 시선이 나타나있다.

10) 헤로디아누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죽음 이후부터 고르디아누스 3세(Marcus Antonius Gordianus Ⅲ, 재위 238-244년)의 제위 계승까지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헤로디아누스의 서술 내용은 과장된 표현과 묘사들이 많다. 연도나 구체적인 사실기재에서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헤로디아누스의 기록 상당 부분이 동시대 디오의 기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A. G. Roos, "Herodianus's Method of Composition", *The Journal of Romna Studies* 5, 1915, pp. 191-193.)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디오의 기록에서 누락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극적으로 표현된 자세한 상황 묘사는 다소 딱딱한 디오의 서술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당대인의 감정을 읽어내기에 용이한 면이 있다. 디오가 내전과정 서술에서 비잔티움 공방전을 자세히 묘사한 반면, 헤로디아누스는 그보다는 인물들의 연설 내용을 자세히 재현하는 등 두 역사가가 같은 사건에 대해 방점을 두는 면이 달라 각각 모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11)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오히려 이 점 때문에 당대에 편찬된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디오나 헤로디아누스의 기록과 함께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D. Barnes)는 렙시스 마그나(Lepcis Magna) 등지에서 발견된 여러 비문들을 기존의 문헌사료들과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세베루스 정치경력에 주가 된 것이 군인이 아니라 행정관과 사법관이었음을 밝혔다.[12] 그러나 해먼드는 그의 정책이 행정가로서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로마제국을 쇠퇴하게 만든 것으로 바라보아, 기존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13] 반스 역시 세베루스의 친아프리카 정책이 혈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그쳤다.

그런가하면 스미스(R. E. Smith)는 세베루스 시대의 새로운 군단 설치와 국경방어체제 개편은 물론, 속주군인들의 결혼 허용, 금반지 착용, 봉급 인상 등에서 보여 지는 군인 처우 개선책을 상세히 살폈다. 이를 통해 세베루스의 군대정책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재위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이민족의 침입에 대응한 국가방어체제의 보완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군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것뿐 아니라, 당시 부족한 군인수를 충원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보았다.[14]

한편 20세기 이후에는 세베루스 시대의 건축과 주화 속 도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베루스조는 로마제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건축의 시대였다. 특히 192년 코모두스 치세 말에 있었던 로마시내 화재로 주요 건물들의 재건축이 요구되었고, 아우구스투스와 베스파시아누스

---

12) 로마 황제 중 최초의 아프리카속주 출신 황제인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는 146년 아프리카 렙시스 마그나의 기사가문에서 태어났다. 이후 로마시와 사르디니아(Sardinia) 속주에서 재무관직으로 관직을 시작했으며, 아프리카총독 부관을 거쳐 법무관으로 근무했다. 그의 첫 군직은 시리아 속주군단장이었지만 당시 시리아속주는 평온하여 군사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으며, 임기도 짧았다. 이후에도 군단을 보유하지 않은 속주에서 총독을 맡았다. 즉 그는 경력의 대부분을 대체로 행정가로 활동했으며, 황제에 오를 당시 재임했던 판노니아 수페리오르의 총독은 그의 첫 군사요직이었다.(M. Hammond, “Septimius Severus, Roman Bureaucrat”,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51(1940), pp. 137-173; T. D. Barnes, “The Family and Career of Septimius Severus”, *Historia :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16(1)(1967), pp. 87-107.)

13) Hammond. p. 171f.

14) R. E. Smith, “The Army Reforms of Septimius Severus”, *Historia :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21(3), 1972, pp. 481-500.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는 신상화의 연구가 있다.(신상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군대개혁」, 『서양고전학연구』 3(1989). pp. 73-123).

(Titus Flavius Vespasianus, 재위 69~79년) 등 앞서 새로운 황조를 개창했던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필요도 있었다.

서던(P. Southern)은 세베루스 시대 비문헌사료들을 분석해 볼 때, 세베루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지배방식과 황제상이 매우 유사하며. 세베루스가 지향한 지배체제가 사실상 도미나투스(dominatus)체제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프린키파투스(principatus)체제에서 도미나투스체제로 향하는 과정이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를 시작으로, 갈리에누스(Publius Licinius Egnatius Gallienus, 재위 253-268년)와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Flavius Valerius Constantinus, 재위 306~337년)에 이르러 완성되는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15] 마스덴(A. B. Marsden) 역시 세베루스 시대 주화와 메달 등의 도상을 분석하여 세베루스가 자신을 헤라클레스(Hercules)와 세라피스(Serapis)에 비견함으로써, 우주의 지배자인 "코스모크라토르(Cosmocrator)"를 표방하였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살아있는 황제의 신격화 경향이 도미나투스체제를 예견한다고 보았다.[16] 코르도바나(O. P. Cordovana)는 세베루스 집권기에 건조된 렙시스 마그나의 건축들이 내전 이후 정권의 안정과 황제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세베루스 시대 건축에 나타난 도상들은 살아있는 황제의 신적 속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도미누스로서의 강력한 황제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17]

---

15) P. Southern, *The Roman Empire from Severus to Constantine*(New York, 2001), p. 1ff.

16) A. B. Marsden, "Between Principate and Dominate : Imperial Styles Under the Severan Dynasty and the Divine Iconography of the Imperial House on Coins, Medallions, and Engraved", *Journal of the British Archaeological Association* 150(1)(1997), pp. 1-16.

17) O. P. Cordovana, "Between History and Myth : Septimius Severus and Leptis Magna", *Greece and Rome* 59(1)(2012), pp. 56-75. 그 외 세베루스 시대 도상에 관한 연구들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M. McCann, *The Portraits of Septimius Severus, AD 193-211*(Rome, 1968); D. Baharal, "Portraits of the Emperor L. Septimius Severus (193-211 A.D.) as an Expression of his Propaganda", *Latomus* 48(3)(1989), pp. 566-580; S. S. Lusnia, "Julia Domna's coinage and Severan dynastic propaganda", *Latomus* 54(1)(1995), pp. 119-140; M. Meulder, "De quelques présages qui concernent Septime Sévère",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77(1)(1999), pp. 137-149; A. Daguet-Gagey, "Septime Sévère et ses fils, Restitutores Vrbis : la personnalisation des mérites impériaux",

아우구스투스가 수립한 제정 초기의 황제상과 지배체제는 4세기 콘스탄티누스 시기와 차이가 있다. 아우구스투스가 수립한 지배체제에서는 황제가 정무관직을 보유하고, 원로원의 일원으로 원로원과 함께 제국을 지배함을 표방했다. 물론 아우구스투스 시기부터 사실상 황제가 행정, 사법, 군사, 재정 등 제국 경영의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군주적 지위를 안착해갔지만, 원로원과의 공존이라는 공화정적 이상은 여전히 유효했다.[18] 때때로 칼리굴라(Gaius Caesar Germanicus, 재위 37-41년), 네로(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 재위 37-68년), 도미티아누스(Titus Flavius Domitianus, 재위 81-96년) 등 원로원을 탄압하며 전제권력을 쥐려는 황제들이 출현했지만,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감된 그들의 치세는 폭군(tyrannus)의 시대로 기록되었다. 반대로 아우구스투스나 네르바(Marcus Cocceius Nerva, 재위 96-98년), 트라야누스(Marcus Ulpius Trajanus, 재위 98-117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당대 로마인들에게 훌륭한 황제로 손꼽히는 황제들은 원로원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곤 했다.

하지만 4세기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치세에 걸쳐 확립된 도미나투스체제에서의 이상적 황제상은 제정 초기와 달랐다. 4세기 로마제국의 황제상은 동방의 전제적 황제상에 가까웠다. 원로원이 유명무실해지고, 니코메디아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제국전역이 중앙 집권되었으며, 이탈리아가 제정초기의 우월한 지위를 상실했다.

앞서 기번은 세베루스의 정책이 3세기의 혼란을 초래하고, 전제적 지배체제로의 쇠퇴를 가속화시킨 계기라고 보았다. 하지만 4세기 로마제국에서의 전제적 지배체제가 잘못되었으며, 문화적 쇠퇴라고 보는 것이 적

Revue numismatique 6(160)(2004), pp. 175-199; C. Gorrie, "The Restoration of the Porticus Octaviae and Severan Imperial Policy", *Greece and Rome* 54(1)(2007), pp. 1-17.

18) 원로원이 프린키파투스체제 확립에 기여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칼비시우스의 원로원결의'에 담긴 의미를 아우구스투스의 프린키파투스 체제 확립과 관련하여 원로원과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해석한 김덕수의 연구가 있다.(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체제강화와 원로원의 위상」, 『서양사론』 50, 1996, pp. 1-45.) 또한 프린키파투스체제의 원로원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상적 황제상과 관련해서는, 고경주, 「소 플리니우스와 프린켑스 정치 인식」, 『서양고전학연구』 50, 2013, pp. 133-160. 참조.

절한지는 의문이다. 세베루스의 군대와 원로원과 관련된 정책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위기를 초래했다면, 왜 디오클레티아누스나 콘스탄티누스는 이상적인 프린키파투스체제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을까. 기번의 평가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공화주의를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투영된 것이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베루스의 도미나투스적인 성격을 띠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베루스가 집권하던 2세기 말에서 4세기에 이르는 로마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3세기 위기(the Crisis of Third Century)'로 표현되는 3~4세기 로마제국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활발하게 진행된 고고학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3세기 위기의 양상을 지역별, 계층별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4세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세기 역시 쇠퇴를 초래한 '위기'가 아닌, '변화'와 '변모'의 전환기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3세기의 변화를 거쳐 4세기에 안정기를 맞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3세기를 열었던 세베루스의 정책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베루스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그가 프린키파투스체제를 회복하지 않고, 도미나투스체제와 유사한 성격을 표방하는 정책을 펼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세베루스의 군대 정책의 배경이 그의 군인경력에 있다고 본 기번의 추론은 앞서 세베루스가 행정가 출신이며 로마 정치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밝았음을 밝힌 해먼드나 반스의 연구로 명분을 잃었다. 한편 세베루스 정책의 도미나투스적 경향이 아프리카 출신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아내 율리아 돔나(Julia Domna)의 출신지인 시리아 등 동방문화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연구들이 있다.[19] 물론 세베루스의 프

19)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S. L. Susann, *Creating Severan Rome : the architecture and self-image of L. Septimius Severus (A.D. 193-211)(Bruxelles*, 2014); S. Swain, *Severan culture*(Cambridge, New York, 2007); A. R Birley, *Septimius Severus : The African Emperor(*Hoboken, 2002); M. K. Asante, "Rediscovering the Lost Romna Caesar: Septimius Severus the Afirican and Eurocentric Historiography", *Journal of Black Studies* 40(4)(2010), pp. 606-618; E. Thomas., "Methphor and identity in Severan architecture: the Septizodium at Rome between 'reality' and 'fantasy', *Severan culture*(Cambrige, 2007), pp. 327-336; R.

로파간다 속에 아프리카와 시리아적 요소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이 답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황제권 강화와 황조의 안정을 위한 세베루스의 정책들은 오히려 앞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코모두스 시기에 시원(始原)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공동 황제나 살아있는 황제와 황가에 대한 신격화 등이다. 그러므로 아프리카나 시리아의 동방적 요소들은 황제권 강화라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범주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재언하면 세베루스 시대 전제적 경향의 배경을 그의 정치경력이나 출신성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제주의 경향들의 조짐이 안토니누스 왕조 말기에 이미 나타났던 것을 고려하면, 그가 집권하기 전부터 진행된 2세기 말의 로마제국의 변화상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3세기 위기'와 관련된 연구들을 통해 세베루스가 집권할 무렵의 2세기 말 로마 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193년 내전에서 표면화된 정치세력의 갈등과 속주도시들의 동향이 세베루스 정책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내전 이후의 반대파에 대한 보복 및 정권 안정으로만 해석되어온 세베루스 시대의 원로원 약화정책이, 황제자문회의 및 근위대 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나타난 지배체제 개편의 성격이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세베루스는 이미 약화 일로에 놓인 원로원이 기존에 갖던 권력을 황제자문회의와 근위대로 이양하여 황제 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베루스의 전제적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이 시기 도상들 속에 나타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황제 중심의 지배체제는 중앙 정치뿐 아니라 속주 지배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베루스 집권기에 속주에 대한 직접지배 경향이 강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속주의 성장과 분열양상에 대응하였

W. Rybicki, "Deux représentations de Septime Sévére", *Archaeologia Polona* 45(1973), pp. 371-378.

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정권안정 혹은 변경위기 대응으로 해석되어온 그의 군대정책의 목적 역시 속주통합 및 민생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세베루스의 정책들이 2세기 말에 대두된 로마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가지며, 도미나투스체제를 준비하는 하나의 전환기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2세기 말 가시화된 로마제국의 위기 양상

1. ‘3세기 위기’의 신화와 2세기 말 제국의 경제상황

1) ‘3세기 위기’ 인식의 변화와 세베루스 정책의 재평가

기번이 1776년 『로마제국쇠망사』에서 안토니누스 황조 이후의 로마 시대를 “쇠망(Decline and Fall)”이라 규정한 이래, 3세기는 ‘위기’의 시대가 되었다. 이후 오랫동안 로마사 연구에서 ‘3세기 위기’는 명제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지, 위기로 보는 현상들이 나타난 기간과 지역, 혹은 대상은 어떻게 설정되는지와 같은 위기의 구체적 실체와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채 마치 신화처럼 존재해왔다.

1920년대 로마의 사회경제사를 정리한 로스토프체프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역사가로 자유주의자였으며, 그의 이력은 역사서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3세기에 나타난 토지의 방치, 인구감소 등 경제적 쇠퇴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사회상을 지주엘리트층과 속주 군단병으로 대표되는 민중을 대치시켜 계급 투쟁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로마제국 쇠퇴의 원인이 국가의 “강압성(the principle of compulsion)”에 있다고 보았다. 전제성을 제국 쇠퇴의 배경으로 보는 견해는 그가 시대를 명명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자신의 저서 『로마사회경제사(*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Roman Empire*)』에서 제정초기는 왕조의 이름으로 분류한 것과 달리, 세베루스조는 ‘군사전제정’으로 명명하였다. 세베루스 시대부터 국가의 강압성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성격이 체계적으로 군사화, 야만화되는 기점으로 보았던 것이다.[20]

19세기부터 진행된 비문 연구 및 화폐학의 발달과 더불어, 20세기 중

20) Rostovtzeff, pp. 448-450.

반 이후에는 탄소방위연대법의 활용 등 고고학 연구방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 덕분에 그 이전에는 가려져있던 로마의 사회경제적 면모가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70년대부터 3세기 위기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브라운(P. Brown)이 3세기의 위기가 지나치게 쇠퇴와 몰락의 시대로 묘사되는 것에 반박했다. 그는 3세기를 안정과 부흥의 4세기를 준비하는 변화의 시대로 파악했고, 그의 연구는 3세기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21] 이후 알폴디(G. Alföldy)는 당대인들에게 3세기 위기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22] 그는 코모두스의 죽음 이후에 로마인들이 이미 제국의 위기를 실감했으며, 세베루스, 갈리에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등 개혁을 추진한 황제들이 당시 정치적 프로파간다에서 진보가 아닌 회복을 표방했다는 점에서도 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23] 맥멀렌(R. MacMullen)은 문헌사료와 3~4세기 두상의 표정 분석까지 아울러 3세기 위기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살폈다. 그는 3세기 위기가, 당시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다양한 층위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24]

1980년대에 들어서는 블루아(L. de Blois)가 디오와 헤로디아누스의 서술을 통해 3세기 위기를 대하는 그리스 엘리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그는 디오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세를 황금시대로, 세베루스 시대를 철의 시대로 평가하는 등 쇠퇴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변경위기가 본격화되는 250년대 이전까지 제국의 멸망과 같은 심각한 정도의 위기 인식은 없었다고 분석했다.[25] 그러나 그의 연구는

---

21) P. Brown, *The World of Late Antiquity(*New York, 1971).

22) Alföldy는 디오와 헤로디아누스의 기록부터 크리스트교 관련 기록까지 문헌 사료들과 비문헌 자료까지 망라하여 3세기에 당대인들이 느낀 위기의 실체를 아홉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는 각각 군주정 체제의 변화, 제국의 불안정, 군대의 세력 강화, 속주의 우위, 사회계층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인구감소와 인력부족, 종교 및 도덕적 쇠퇴, 이민족의 침입이었다.(G. Alföldy, "The Crisis of the Third Century as Seen by Contemporaries",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15(1)(1974), pp. 99-103.)

23) *Ibid.,* pp. 109-110.

24) R. MacMullen, *Roman government's response to crisis 235-337(*New Haven, 1976). pp. 2-23.

25) L. de Blois,, "The Third Century Crisis and the Greek Elite in the Roman

쇠퇴의 배경을 세베루스의 군대정책에 있다고 보는 등 위기의 양상을 군사적 측면에 한정하여 파악한 한계가 있다.[26]

이 무렵 로스토프체프에 이어 경제적 관점에서 3세기 위기에 접근하려는 연구들도 있었다. 휘태커(C. R. Whittaker)는 토지의 방기 등 3세기 경제적 쇠퇴의 증거로 제시되는 현상들을 재검토하여, 3세기의 인구감소나 토지황폐화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시리아지역은 3세기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등 위기를 겪는 정도에 있어 지역적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27] 고파르트(W. Goffart), 비팅호프(F. Vittinghoff) 역시 각각 예속소작제와 속주자치의 위축을 부정하며 경제적인 면에서의 3세기 위기설을 부정했다.[28]

반대로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쇠퇴가 실재했음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 1980년 홉킨스(K. Hopkins)는 난파선의 수를 분석한 파커(A. J. Parker)의 연구를[29] 토대로 3세기 지중해의 무역량이 급감한 것을 밝히고, 화폐주조량과 화폐 가치 절하, 현물세의 증가 등을 아울러 3세기의 경제적 쇠퇴를 논증했다.[30] 이후 종먼(W. M. Jongman) 역시 로마제정기 난파선의 수는 물론 그린란드의 얼음기둥, 로마인의 대퇴골 넓이 등 그간의 고고학적 성과를 망라하여 3세기 로마제국에 전반적인 경제적 위축이 있었음을 추론했다. 종먼은 3세기 경제적 위기의 배경이 안토니누스 황조 시기의 역병과 기후변화라고 보았다.[31]

한편 1970년대 이후 고고학 연구 성과는 3세기 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Empire",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33(3)(1984), pp. 358-377.

26) *Ibid.,* p. 375.

27) C. R. Whittaker, "Agri Deserti", M. I. Finley ed., *Studies in Roman Property(*Cambridge, 1976), pp. 137-138.

28) W. Goffart, *Caput and Colonate(*Toronto, 1974); F. Vittinghoff, *Stadt und Herrschaft, Römische Kaiserzeit und Hohes Mittelatlter(*München, 1982), pp. 114-115.

29) A. J. Parker, *Ancient Shipwrecks of the Mediterranean and the Roman Provinces*(Oxford, 1980).

30) K. Hopkins, "Taxes and Trade in the Roman Empire",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70(1980), pp. 101-125.

31) W. M. Jongman, "Gibbon was right: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conomy", O. Hekster et al. ed. *Crises and the Roman Empire*(Leiden, 2007), pp. 183-200.

요인을 부각시켰다. 2세기 중반에 발병한 이른바 안토니누스 역병이다. 역병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재위기인 165년에 파르티아로 원정을 떠났다 돌아온 군인들과 함께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이탈리아를 비롯한 제국 곳곳이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엄청난 인구감소가 나타났다. 첫 번째 역병은 180년까지 이어졌다. 디오는 189년에 재발한 역병으로 인해 로마시에서 하루에만 2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했다. 또한 속주도시뿐 아니라 제국전역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33] 헤로디아누스는 역병을 동반한 기근이 190년까지 이어졌다고 했다.[34] 현재 학자에 따라 역병으로 인한 구체적인 사망률은 대체로 7~25%까지 추정하고 있다.[35] 안토니누스 역병이 로마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와 던컨-존스(R. Duncan-Jones)와 샤이델(W. Scheidel)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역병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조세징수는 물론, 공공건물 조성, 화폐주조, 군인소집, 농업생산에 이르는 전반적인 제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보았다.[36]

그러나 이후 브룬(C. Bruun)은 던컨-존스와 샤이델의 논증에 활용된 비문헌자료가 가진 한계를 짚으며, 역병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실제로 발생하긴 했지만, 그 규모나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함을 피력했다.[37] 국내 김경현 역시 안토니누스 역병의 피해가 상당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로마제국의 쇠퇴와 연결시키는 것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

32) Dio Cassius 71.2;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Lucius Verus* 8.1-4.

33) Dio Cassius 73.14.3-4.

34) Herodianus 1.14.1-2.

35) 평균적인 사망률을 7~10%까지 제시하고, 도시 지역은 13~15%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도 있으며(R. J. Littman, M. L. Littman, "Galen and the Antonine plagu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94(1973), pp. 243-255), 사망률을 25%까지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W. Scheidel, *The ancient economy*(New York, 2002; Y. Zelener, *Smallpox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Roman Economy After 165 AD*(New York, 2003). 극단적인 경우 50%까지 추정하기도 한다.(J. F. Gilliam, "The Plague under Marcus Aureliu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82(3)(1961). pp. 225-251.)

36) R. Duncan-Jones, "The Impact of the Antonine Plague", Journal of Roman Archaeology 9(1996), pp. 108-136; W. Scheidel, Ibid.,

37) C. Bruun, "The Antonine plague in Rome and Ostia", Journal of Roman Archaeology 16(2003). pp. 426-434.

보았다.[38]

이렇듯 1970년대 이후 3세기 위기의 구체적인 실체와 정도를 파악하고자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차 휘태커나 브룬 등과 같이 위기의 정도나 실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기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 시선은 3세기의 사회경제적 현상들을 '위기' 프레임이 아닌 새로운 틀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3세기를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제기된 것은 주로 "변화(change)"와 "변모(transformation)"였다. 포터(D. S. Potter), 스트로벨(K. Strobel), 카메론(A. Cameron) 등의 학자들이 이러한 흐름을 대표한다.[39] 이들은 앞서 알폴디와 블루아가 참고한 기독교인들의 기록은, 당시 기독교가 박해받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헤로디아누스와 디오가 보여주는 당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역시 개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일축하였다.

반면 여전히 3세기를 이해하는 데에 '위기' 프레임이 유효하다고 보는 일군의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2006년 나이메헨(Nijmegen)에서 열린 '제국의 영향(Impact of Empire)' 7번째 학회에서 '위기들과 로마제국(Crises and the Roman Empire)' 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견지의 연구들을 발표했다. 리베슈에츠(Liebeschuetz)는 '위기'라는 용어가 내포한 '전환점(turning point)'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3세기 후반의 제위계승다툼 등의 현상들을 포괄하기에 '위기'라는 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것이 3세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40]

2006년 나이메헨 학회에서는 위기의 영향과 범위를 세분화하여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벌리(A. R. Birley)와 힐라리(A. Hilali)는 각각 브리타니아와 아프리카지역으로 국한해 이 지역에

---

38) 김경현, 「안토니누스 역병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서양고대사연구』 37(2014), pp. 133-168.

39) D. S. Potter, *The Roman Empire at Bay A.D. 180-395*(New York, 2004); K. Strobel, *Das Imperium Romanum im "3. Jahrhundert"*(Stuttgart, 1993); A. Cameron, "The perception of crisis", *Settimane di studio del centro itlaliano sul' alto medioevo* 45(1998), pp. 9-31.

40) W. Liebeschuetz, "Was there a crisis of the third century?", O. Hekster et al. ed., pp. 11-20.

나타난 3세기 위기의 영향을 살폈다. 또한 멘넨은 원로원 계층에 한정하여 이들이 3세기를 거치면서 겪은 지위와 권력의 변화상을 살폈다.[41] 이와 같이 최근 3세기 위기에 대한 연구는 위기로 여겨지는 현상들의 구체적인 실체와 배경, 지리와 계층에 따른 범위와 영향을 다층적이고 다원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기'라는 용어에 대한 찬반은 논의의 초점을 '위기'와 '극복' 중 어디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일 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세기 말 이후 나타난 위기 현상들이 3~4세기에 걸친 제국의 체제변화 이후에 안정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하고 있다.

한편 위기의 기간 설정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왔다. 대체로 3세기 위기는 세베루스 알렉산더의 암살 이후 제위계승으로 인한 내전이 가시화되는 235년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집권하는 284년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 관점에서는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위계승을 위한 빈번한 내전에 주목한다. 하지만 제위계승 다툼을 위기로 바라보는 관점은 합의된 것이 아니며, 연구자에 따라 로마제국의 위기로 규정되는 기간은 여전히 매우 다르다.

기번보다 앞서 로마의 흥망성쇠를 다룬 몽테스키외(C. de Montesquieu)는 로마 쇠퇴 시작의 기점을 공화정이 몰락한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로 보았다. 특히 코모두스 이후의 황제들은 황제라는 이름 아래 폭군으로 존재했다고 표현했다. 몽테스키외는 이 시기를 "군사정부(le gouvernement militaire)"로 표현했으며, 여기에는 세베루스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듯 공화정을 이상적으로 바라본 것은 앞서 기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는 1인지배체제의 등장 이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시민의 자유가 퇴색되었으며, 이것이 로마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42] 20세기에 들어와, 1939년

41) A. R. Birley, "Britain during the third century crisis", *ibid.*, pp. 45-56; A. Hilali, "La crise de 238 en Afrique et ses impacts sur l'Empire Romain", *ibid.*, pp. 57-66; I. Mennen, "The Caesonii in the third century A.D. : The impact of crises on senatorial status and power", *ibid.*, pp. 111-124.

42) C. de Montesquieu, *Considérations sur les causes de la grandeur des Romains, et de leur décadence(1734),* D. Lowenthal, trans.(Indianapolis, Cambridge, 1999),

발간된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간한 『제국의 위기와 극복 193~324년(*The Imperial Crisis and Recovery A.D.193-324*)』는 위기의 시대를 무려 131년에 걸친 기간으로 잡았다.[43]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부연구들은 연구자별로 시기 설정이 상이하다. 알폴디(A. Alföldy)의 경우 같은 책에 실린 연구에서 위기의 시기를 변경위기가 두드러진 249년 이후 21년으로 압축적으로 보기도 했다.[44] 1980년대에 들어와 블루아는 3세기 위기를 193년에서 284년까지로 보았다.[45] 세베루스가 집권하게 된 193년의 내전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집권에 이르는 시기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세베루스를 포함한 세베루스 황조의 기간 역시 위기의 시대가 된다. 맥멀렌은 군인황제시대가 시작되는 235년부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영면하는 337년까지를 위기의 시기로 보기도 했다.[46]

다시 말하면,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위기의 기간이 달라졌다. 즉 내전을 동반한 제위계승의 혼란이라는 시각에서는 235~284년, 변경위기가 두드러진 시기로 보는 입장에서는 249~284년으로 본다. 한편 코모두스의 암살로 안토니누스 황조가 끝나고 세베루스가 등장하면서 프린키파투스 체제의 전반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193년부터로 볼 수도 있다.

혹은 앞서 살펴보았듯, 위기의 실체에 따라 위기 양상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하는 연구 경향은 위기의 시기를 설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멘넨(I. Mennen)의 경우, 정치적 위기로 249~284년을 다루면서도,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위기는 192년경에 이미 감지되었다고 보았다.[47] 본고에서도 역시 절충적인 관점에서 로마제국의 위기를 구체적인 실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되, 이를 포괄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즉 내전과 제위갈등이 나타나는 정치적 위기인 235~284년의 기간과 사회경제적 위기

---

pp. 169-170., 몽테스키외의 로마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장세용, 「몽테스키외의 「로마성쇠원인론」과 역사인식」,『서양사론』 45(1995), pp. 55-99. 참조.

43) S. A. Cook ed., *The Imperial Crisis and Recovery A.D.193-324*(Cambridge, 1939).

44) A. Alföldy, "The crisis of the Empire(A.D.249-270)", *ibid.*

45) Blois, pp. 358-377.

46) MacMullen, *ibid.*, 김창성 역, 『로마제국의 위기 : 235~337년, 로마 정부의 대응』, 한길사, 2012, p. 19.

47) I. Mennen, *Power and Status in the Roman Empire AD 193-284*(Leiden, 2011).

가 나타나는 2세기 후반을 모두 염두에 두고 3세기 위기를 이해할 것이다.

3세기에 대한 다각적이고 유연한 시각은 세베루스 시대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던, 종먼, 주이더혹 등의 학자들은 2세기 말부터 확연하게 나타난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3세기 전반에 로마제국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제국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세베루스의 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했음을 뜻한다고 보았다.[48] 실제로 3세기 중반 이후 여러 군인황제들이 세베루스의 이름에서 정통성을 찾은 사례들은 세베루스의 시대가 후대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49] 후기 로마제국에서 황제들에게 요구되는 미덕이 그에게서 발견되었으며, 모범으로 기억되는 황제들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베루스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4세기에 다시 중흥을 이룬 로마제국 지배체제의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2) 2세기 말 로마제국의 경제위기

이탈리아지역은 제정 초부터 경제적 생산력이 속주에 비해 쇠퇴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척박한 땅은 자작농이 아닌 노예들을 활용한 대농장으로 채워져 갔고, 대농장마저 정복전쟁이 정체되고 노예공급이 끊어지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하지만 속주들의 사정은 반대였다. 제국의 평화 속에 점차 인구가 늘었고, 새로운 도시와 시장들이 채워지고 있었다.[50]

---

48) Southern, p. 3; Jongman, p. 199; A. Zuiderhoek, "Government centralization in late second and third century A.D. Asia minor : a working hypothesis", *The Classical World* 103(1)(2009), p. 45.

49) 대표적으로 마크리누스(Marcus Opellius Macrinus, 재위 217~218년)가 스스로를 세베루스와 연결시켜 정통성을 얻으려 했다. 3세기 중반에 이르러 군인황제들은 자신의 정통성의 근거를 이른바 "훌륭한 전임황제들(Good Emperors)"의 집단에서 찾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고르디아누스 1, 2세(Marcus Antonius Gordianus Ⅰ, Ⅱ, 재위 238년)을 비롯해 데키우스(Decius Gaius Messius Quintus Trajanus, 재위 249~251년)가 세베루스의 이름을 취하는 등, "훌륭한 전임황제들"의 명단에 세베루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 Dmitriev, "'Good Emperors' and Emperors of the Third Century", *Hermes* 132(2)(2004), p. 216, p. 220.)

그러나 점차 제국의 평화가 가지고 오는 경제적 성장도 한계에 부딪혔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대체로 방어위주의 국방정책을 고수하면서 정복전쟁을 통한 부의 유입이 중단되었고, 반대로 방어를 위한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리하여 국가재정은 점차 악화되어 갔다. 게다가 이탈리아 지역의 생산력 약화로 인해 국가재정의 속주의존도가 점차 높아졌다.

또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기에 국경위협이 본격화되면서, 군사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170년 포(Po)강 계곡에 게르만족이 나타났을 때, 황제는 노예들과 검투사들까지 전투에 투입시켜야 했다.[51] 또한 160년대 파르티아원정과 170년대 마르코만니(Marcomanni)전쟁으로 국고가 부족했고, 역병으로 인한 극심한 인구감소와 세수감소는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리하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비 마련을 위해 트라야누스 포룸에서 황실 물품들을 경매에 붙이기까지 했다.[52]

국가 재정 위기는 속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세수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를 감당할 인구는 감소한 상황이었다. 주이더혹은 2세기 말 역병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로마경제에 미친 영향을 14세기 흑사병이 유럽경제에 미친 영향과 비교했다. 전원에 기반을 둔 지주들과 독립적인 도시 부르주아들로 구성된 중세유럽과 달리, 로마제국은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부재지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속주상류층들이 속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쥐고 있었다. 로마제국의 속주경영방식이 대규모 행정인력보다는 속주도시의 엘리트들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거대한 크기의 속주가 소수의 중앙관리들에 의해 관리되었고,[53] 황제가 파견한 중앙관리들의 주요 업무는 속주상류층의 협조를 통한 세금 수취였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제국의 징수액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

50) Rostovtzeff, p. 375.
51) Dio Cassius 74.10.8.
52)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Marcus Aurelius.* 17.3-5.
53) Hopkins는 2세기 경 약 6천만 명의 속주민에게 할당된 총독의 수는 대략 150여명으로, 총독 1인당 약 40만 명의 속주민을 통치했던 셈인데, 중앙집권력이 강했던 12세기 중국의 남송이 관리 1명 당 1만 5천명의 주민을 관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중앙정부의 직접지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었다고 보았다.(K. Hopkins, *ibid,* p. 117.)

것을 전제로 가능했다. 속주의 상류층과 민간징세청부업자들이 중앙정부의 수세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징수액이 높아지면 그러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진다. 게다가 제정초기에 비해 속주상류층의 개인적 기부에 의해 이루어진 속주 내 각종 건축사업이 크게 감소하는 것에서 보이듯,[54] 생산력 저하, 무역 감소로 인해 속주의 유산자들의 수입 역시 감소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조세징수액의 증가와 속주지주층의 수익 감소는 수세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지주층이 기존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수취하거나 상당량을 착복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55] 그리하여 14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소작농의 지위 및 임금의 상승을 끌어낸 반면, 역병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3세기 로마제국 소작농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늘어난 세금부담이 대부분 소작농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세베루스 집권 초기에 나타난 로마시의 빈민 유입 증가나,[56] 군대까지 동원하였음에도 2년 동안 진압이 힘들었던 600여 명의 도둑 무리 역시 속주 민생의 불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57] 또한 당시 의사였던 갈레노스(Claudius Galenus)가 남긴 기록에도 비슷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 도시에 사는 지주들은 추수가 끝나자마자 내년에 먹을 충분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지대를 수취했고, 농민에게 남은 것은 콩 종류뿐이었으며, 그들은 이 역시 상당량을 도시로 가져갔다. 농민들이 저장한 콩은 겨울동안

54) Zuiderhoek, pp. 39-51, 반대로 Brown은 속주상류층의 개인기부 감소는 중앙정부 권한 확대로 인해 공공활동에 대한 유인책이 떨어지면서, 사저(私邸) 등 개인건축에 대한 투자로 생활양식이 달라졌을 뿐, 이것이 속주상류층의 경제적 쇠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Brown, p. 375.) 하지만 2세기 말 중앙정부가 갑자기 직접지배 경향을 강화했던 배경을 고려할 때, 속주의 경제적 쇠퇴가 선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55) Zuiderhoek, p. 44.

56) 디오는 로마시의 빈민 증가의 원인이 세베루스의 근위대개혁으로 근위대로 충원되었어야할 이탈리아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빈민의 무리와 근위대가 수용할 수 있는 충원수를 비추어볼 때 이러한 추론은 무리가 있다.(Dio Cassius 75.2.4-5.)

57) Dio Cassius 77.10.1-7.

떨어졌고, 그들은 봄에 영양가 없는 음식들로 배를 채워야만 했다.[58]

그리하여 세베루스가 집권하던 당시 속주의 민생과 세수안정이 절실했다. 디오의 기록에도 당시 국가재정 문제의 위기를 우려하는 언급이 있는데,[59] 그는 제국경영에 중간계층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디오의 조언은 속주상류층 출신이자 원로원의원인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을 뿐, 속주경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58) Galenus, *De alimentorum facultatibus,* 6.749-752.
59) Dio Cassius 52.19.28, 22, 25.

2. 코모두스의 암살과 정치세력 갈등의 부상

192년 코모두스가 암살되었다. 일찍이 원로원의원들에 의한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에도 살아남은 그였지만, 끝내 10년 뒤 목욕탕에서 근위대장 라이투스(Aemilius Laetus)의 사주를 받은 레슬링 선수에게 목이 졸려 죽음을 맞게 되었다. 갑작스런 황제의 죽음은 제위계승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세력 간의 갈등을 초래했다. 앞서 41년, 68년, 96년에 황제가 암살되는 위기 속에서 원로원과 근위대, 속주군단이 제위계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권력의 축으로 등장했다.

먼저 41년 칼리굴라의 암살 당시, 원로원의 사주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칼리굴라의 암살을 주도하고 이후 클라우디우스(Tiberius Claudius Nero Germanicus, 재위 41~54년)를 제위에 올리는 과정에 근위대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원로원을 압도하는 근위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받으면서 제위를 노리는 황제 후보자들은 근위대를 찾아가 그들에게 하사금을 약속하며 지원을 얻어내곤 했다.[60]

68년의 위기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권력축으로 속주군단이 등장했다. 오토(Marcus Salvius Otho, 재위 69년)가 원로원과 근위대의 지지를 받아 제위에 오른 69년, 라인(Rhein)강 주둔군이 비텔리우스(Aulus Vitellius, 재위 69년)를 황제로 선포하고, 동방주둔군은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하면서 속주군단들에 의한 내전이 시작된 것이다. 내전은 동방주둔군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의 승리로 끝났다. 속주군단의

60) 하사금은 공화정기 정복전쟁 이후 전리품을 나누던 것에서 비롯되나, 제정기에 들어와 정복전쟁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평상시에도 하사금을 지급하게 되었다.(Dio Cassius. 55.6.4.) 대표적으로 41년 클라우디우스는 황제로 즉위하기 직전에 근위대에게 일인당 1만 5천 세스테르티우스를 하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Suetonius, *Claudius*, 10.4; Tacitus, *Annales*, 12.41; Dio Cassius. 60.12.4.) 이 외에도 네로(Tacitus, *Annales*, 12.69; Dio Cassius. 61.14.3; Suetonius, *Nero*, 10.), 갈바(Plutarch, *Galba*, 2.2; Tactius, *Histories*, 1.5; Suetonius, *Galba*, 16.),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Marcus Aurelius*, 7.9;17.4.) 등의 예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내전과정에서 군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급되었고, 일반적으로 연봉의 몇 배에 이르렀다.(조영식, 「로마 황제 근위대의 역할과 위상」, 『군사』72, 2009, pp. 199-229. 참조.)

총독들이 군대의 지지를 얻어 제위를 노리게 된 기점이었다.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되었을 때에는 원로원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연로한 원로원의원 네르바를 황제로 추대했다. 그러나 네르바는 재위 중에 근위대 병사들에게 포위되어 협박을 당하는 등 군사력에 기반하지 않은 권력 유지의 어려움을 실감했다. 그래서 이후 게르마니아 수페리오르(Germania Superior)의 총독 트라야누스를 후계자로 삼아 제위계승의 안정을 도모해야 했다. 트라야누스는 네르바 사후 곧바로 로마로 입성하지 않고, 앞서 네르바를 감금했던 근위대장 아일리아누스(Casperius Aelianus)를 자신의 임지로 소환하여 사형시켰다.[61]

근위대장이던 라이투스가 근위대 전반의 뜻과 상충하는 페르티낙스를 제위에 올린 것이나, 원로원의원들이 합의된 의사를 드러내지 못하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어 근위대나 특정 속주군단과 뜻을 같이하는 등, 세 권력축이 언제나 명확한 의사결정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근위대가 가진 특권유지에 대한 갈망, 원로원의 귀족정에 대한 이상 추구, 속주군단의 처우개선과 국방강화 요구 등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세 권력축이 황제에게 기대하는 바가 대체로 달랐다. 그리하여 41, 69, 96년의 위기 속에서 원로원과 근위대, 속주군단이 제위계승의 변수로 등장했다.

192년 코모두스의 암살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코모두스의 암살을 주도한 근위대장 라이투스와 에클렉투스(Eclectus), 마르키아(Marcia) 등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황제의 죽음을 뇌졸중으로 인한 병사로 위장했다. 그런 다음 원로원, 근위대, 속주군단 모두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만한 인물을 물색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추대한 인물은 연로한 원로원의원인 페르티낙스였다. 디오는 그가 추대된 이유를 뛰어난 능력과 원로원의원 신분 때문이라고 언급했으며,[62] 헤로디아누스는 좀 더 구체적

61) Dio Cassius 68.5.4., 이후 트라야누스는 아일리아누스의 후임으로 수부라누스(Attius Suburanus)를 근위대장으로 앉혔는데, 당시 그는 수부라누스에게 칼을 내리며, “이 칼을 받아라, 만약 내가 통치를 잘하면 이를 나를 위해 쓰고, 내가 통치를 못하면, 나에게 대항하는데 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트라야누스와 그의 시대가 요구하는 황제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Dio Cassius 68.5.4.)

62) Dio Cassius 74.1.1.

으로 묘사했다.

> 그러나 먼저 그들(라이투스, 에클렉투스, 마르키아)은 그들 자신에게는 보호자로, 대부분의 로마시민들에게는 폭군의 가혹한 폭력으로부터 한숨 돌릴 여유가 될 만한 제국의 후계자로 연로하고, 적절한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여러 가능성들을 고려한 끝에 그들은 페르티낙스보다 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게르만족과 동방의 야만 부족들에게 많은 승리를 거두며, 여러 군사와 행정직에서 두각을 드러낸 이탈리아인이었다. 그는 또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존경받은 조언자들 중 코모두스의 처형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마도 코모두스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친구들과 장군들 중 가장 높은 명망을 얻은 그를 경외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의 검소함이 그를 지켰을 수도 있다. 페르티낙스가 명망이 높은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가 다른 누구보다 관직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모았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63]

헤로디아누스가 페르티낙스의 황제 추대 배경을 서술한 윗글에서 먼저 발견되는 부분은 연로한 사람이라는 구절이다. 원로원의원 다수가 합의하여 대표로 추대할 수 있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나이였다. 연로한 의원들은 원로원의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그런 이유로 원로원은 노인들의 모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64] 제정기 원로원이 황제로 추대한 인물들은, 갈바나 네르바, 이후 공동황제로 추대된 발비누스(Decimus Caelius Calvinus Balbinus, 재위 238년)와 푸피에누스(Marcus Clodius Pupienus Maximus, 재위 238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은퇴시기를 지난 나이 많은 의원들이었다. 이제 60세를 넘긴 페르티낙스의 나이는 다수 원로원의원들이 황제의 자격으로 수긍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65]

---

63) Herodianus 2.1.3-4.

64) 트라야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 원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부분에서, 원로원의원의 전형은 토가를 입은 노인으로 표현된다.(Dio Cassius 68.5.1.), 또한 원로원이 노인들의 모임이라는 이미지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는, R. J. A. Talbert, *The Senate of Imperial Rome*(Princeton, 1986), p. 153. 참조.

65) 헤로디아누스의 서술 중 라에투스가 페르티낙스에게 제위를 제안하며 언급한 내용 역시 이를 보여준다.(“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에게 제국을 맡기기 위함이다. 왜냐

그러나 원로원이 선호하는 황제의 자질을 고려할 때, 페르티낙스가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다양한 군사경력을 토대로 원로원의원 자격을 얻어 진입한 '호모 노부스(homo novus, 新人)'였다. 원로원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가문배경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투스가 그를 추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윗글에 나타난 또 다른 고려요소는 군사적 행적이다. 앞서 원로원에 의해 추대된 갈바나 네르바의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이력이었다. 군사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나머지 제위계승에 영향을 미치는 두 세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원로원의 합의만으로 황제에 오른 갈바나 네르바의 경우 재위 중 근위대에게 납치되거나 살해되는 위협을 겪었다. 이제 황제가 가져야할 덕목으로 군대 장악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라이투스가 페르티낙스와 함께 원로원으로 향하기 전, 먼저 근위대캠프로 가서 그들의 동의를 얻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은 헤로디아누스가 옮긴 라이투스의 연설이다.

> 너희(근위대)들 중 노병들이 이를 증명할 것이며 그(페르티낙스)의 군사적 명성이 증거가 된다. 그 외의 병사들은 오랜 세월 로마시 수도방위대장을 맡아온 그를 존경하고 받들어라. …… 페르티낙스의 통치는 로마에 있는 근위대 너희 뿐 아니라 로마제국의 강변과 변경에 주둔해있는 군인들에게도 환영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업적을 경험했고 그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66]

실제로 라이투스의 예상이 어느 정도 적중했다. 근위대가 의구심을 느꼈지만 반발할 수 없었고, 속주군단 역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

하면 당신은 원로원의원 중에서 근검한 생활방식과 대단한 권위로 뛰어난 명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나이는 존경받을 만하며 당신은 로마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Herodianus 2.1.9.))

66) Herodianus 2.2.8., 디오의 서술에는 다소 다른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의 기록에는 라이투스의 연설 장면이 없으며, 페르티낙스가 약속한 하사금 1만 2천 세스테르티우스와 근위대장인 라이투스의 존재로 불만을 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묘사했다.(Dio Cassius 74.1.1-4.) 하지만 라이투스 연설 내용의 사실여부와 별개로 헤로디아누스를 비롯한 당대인들이 근위대와 속주군단이 추구하는 황제상에 군사적 요소가 중요했음을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오히려 이후 페르티낙스가 살해되자, 속주군단들은 그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한편 헤로디아누스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요소는 청렴한 관직경력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의 인연이었다. 이 점은 특히 로마민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당대인들에게 황금시대로 여겨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시대를 재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67] 근위대의 동의를 받은 페르티낙스는 다음날 아침 원로원회의에서 정식으로 황제로 추대되었다. 원로원의 승인 전에 미리 근위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서, 당시 원로원의 승인이 이미 얼마나 영향력과 권위를 상실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코모두스가 공공의 적으로 선포되었다.[68] 이렇게 시작된 페르티낙스의 치세는 아래 디오의 표현처럼 원로원의원들의 기대에 걸맞게 겸손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왜냐하면 그(페르티낙스)는 고대의 관행들과 조화를 이루며, 원로원의 수장으로서 행동했기 때문이다.[69]

디오가 페르티낙스의 미덕으로 매우 강조한 요소는 겸손이었다. 페르티낙스는 자신을 황제로 추대하는 원로원회의에서 자신이 명망 있는 가문출신이 아닌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킬리우스 글라브리오(Acilius Glabrio)라는 고귀한 가문 출신 원로원의원을 황제 후보로 추천하기까지 했다.[70] 하지만 글라브리오를 비롯한 원로원의원들은 간밤에 라이투스와

---

67) 디오(Dio Cassius 74.1.2.)와 달리 헤로디아누스의 서술 속에는 라이투스와 페르티낙스가 근위대진영으로 달려가 군인들의 동향을 살필 당시 로마민중이 함께 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Herodianus 2.3.9-10.) 이 때문에 근위대가 그 자리에서 반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장면은 내러티브 구성과정에서 각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기의 경력만으로 로마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끌어냈다는 설명은 부족하다. 오히려 페르티낙스의 대중적 인기는 그가 황제가 된 이후에 얻었다. 페르티낙스는 세금감면 정책으로 로마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68년의 위기 당시 갈바가 무상곡물 배급중단으로 로마민중의 지지를 잃어 오토가 반기를 꾀하기 수월했던 것과 달리, 페르티낙스를 살해되자 로마민중은 근위대와 율리아누스에게 크게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로마민중의 보호를 받는 페르티낙스의 집권 장면은 사후 민중의 감정을 소급적용하여 재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68) Dio Cassius 74.2.1; Herodianus 2.3.3.

69) Dio Cassius 74.5.1.

근위대가 합의한 사실을 알았고, 섣불리 반대의견을 표할 수 없었다. 즉 페르티낙스라는 대안은 연로한 원로원의원으로서의 자격에 더해, 군사적 명성으로 근위대와 속주군단을 제어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페르티낙스가 가진 이력이 그 기대에 부응했으며, 앞서 묘사된 것처럼 민주적 원칙을 회복하여 원로원도 만족시켰다.

그러나 코모두스 시절과 달리 더 이상의 약탈과 방탕한 생활이 허용되지 않은 근위대는 페르티낙스에게 불만을 가졌다.[71] 또한 이유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위대장인 라이투스 역시 페르티낙스의 정책에 반감을 가졌다.[72] 그는 근위대와 함께 당시 콘술이던 팔코(Quintus Pompeius Falco)를 황제로 올리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들의 음모는 사전에 발각되었으며, 페르티낙스는 관대한 성품에 걸맞게 팔코를 죽이지 않고 용서했다.[73] 그럼에도 이후 라이투스와 근위대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새로운 황제 추대를 시도했다. 원로원의원 중 라스키비우스(Triarius Maternus Lascivius)에게 제위를 요청하기도 했다.[74] 하지만 갑작스런 제위 요청에 당황한 라스키비우스가 스스로 페르티낙스에게 달려가 용서를 구하면서 이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근위대가 궁전을 습격해 페르티낙스를 살해했다.[75] 그런 다음 근위대는 자신들의 병영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을 벌이면서 디오와 헤로디아누스가 경매로 묘사할 만큼[76] 수준 낮은 방식

---

70) Dio Cassius 74.3.1-4; Herodianus 2.3.3-4.

71) Dio Cassius 74.8.1; Herodianus 2.5.1.

72) 디오의 서술 속에는 앞 뒤 정황설명 없이 라이투스가 근위대와 함께 팔코를 제위에 앉히려는 음모를 세우는 장면을 보여준다.(Dio Cassius 74.8.2.)

73) Dio Cassius 74.8.2;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6.3.

74)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6.3.

75) 헤로디아누스의 서술에는 페르티낙스의 암살 과정에 라이투스가 간여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Herodianus 2.5.3-6.) 하지만 당시 라이투스가 근위대장이었고, 율리아누스가 페르티낙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으로 후에 라이투스를 처형한 것에서 그가 깊숙이 개입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76) 경매와도 같았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한 디오(Dio Cassius 74.11.1-4.)와 보다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한 헤로디아누스의 서술(Herodianus 2.6.6-9.)을 바탕으로 흔히 율리아누스의 제위가 경매를 통해 낙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Appelbaum은 정황상 경매가 아닌 라이투스와의 사전 상의 끝에 근위대에 의해 황제로 추대된 것으로 보았

으로 황제 후보를 물색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하사금을 제시한 부유한 원로원의원 율리아누스를 황제로 추대하였다.

이제 근위대는 황제계승을 위한 수단을 넘어 황제 추대를 주도할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권력은 정제되지 않았고 정당성도 없었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하여 민중의 지지도, 속주군단의 지지도 없었다. 게다가 속주군단을 제어할 만한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다.

근위대의 월권에 대한 로마시 민중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율리아누스 제위 이후 민중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도시 곳곳에서 다치고 죽임을 당했다.[77] 전차경기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중은 시리아 총독 니게르(Gaius Pescennius Niger, 재위 193~194년)를 제국의 수호자로 추대하기도 했다.[78] 소식을 전달받은 니게르는 시리아군단의 추대를 받아 스스로 황제를 선포했다. 판노니아의 총독 세베루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황제로 자처하고 나선 세 명의 총독은 각각 시리아의 니게르, 판노니아의 세베루스, 브리타니아의 알비누스(Decimus Clodius Septimius Albinus, 재위 193년, 196~197년)였다. 그리고 이후 제위를 결정하기 위한 193년부터 197년까지의 내전이 시작되었다.

192년 코모두스의 암살은 이렇듯 오현제 시기 내내 내재해있던 정치

다. 나아가 율리아누스가 페르티낙스의 살해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당시 헤로디아누스가 극적으로 묘사한 경매 행위는 실제로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디오의 서술 속에는 단지 두 후보자들이 근위대에게 금액을 제시했고, 근위대는 그들 중 선택했다고 기술되어있다. 헤로디아누스가 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담벼락 위에서 황제의 자리를 경매에 붙이고 율리아누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금액을 제시하여 군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저열한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다. 실제 일어났다면 아주 매력있었을 이 소재가 4세기 『황제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경매란 개념이 황제가 근위대에게 하사금을 통해 지지를 얻어야 했던 상황에 대한 단순한 메타포였음을 나타낸다고 추론했다.(A. Appelbaum, “Another look at the assassination of Pertinax and the accession of Julianus”, *Classical Philology* 102(2007), pp. 201-202.)

77) Dio Cassius 74.13.5.

78) Herodianus 2.7.3; Dio Cassius 74.13.5, 하지만 니게르가 지목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 사료 모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스출신인 디오와 헤로디아누스가 동방지역 후보였던 니게르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했을 수도 있고, 당시 원로원의원 구성에서 동방출신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이들이 민중의 동향을 이끌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세력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황제의 죽음 때 마다 나타난 제위계승 갈등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98년 위기 이후 다시 등장한 192년 이후의 제위계승 위기는 제위계승의 태생적 불안정뿐 아니라 그간 내재해있던 원로원, 근위대, 속주군단의 갈등과 위상변화를 함께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문헌에는 192년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원로원의 역할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디오가 원로원의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98년 위기 때만 해도 네르바를 제위계승 후보로 내세우는 등 주체적인 노력을 보이던 원로원이 이상하리만치 존재감이 없다. 이들은 단순히 황제를 추인하고, 새로운 황제의 등장과 암살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으로만 등장했다. 원로원의 무력화는 제권(帝權)에 대한 근위대의 월권을 제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제정 초부터 황제의 군사적 역량이 중요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있어 아그리파(Marcus Vipsanius Agrippa)의 존재가 군사적 덕목을 보완하는 역할이었으며, 네르바를 제외한 오현제의 모든 황제들은 직접 군사원정에 출정하고 군사적 업적을 남긴 황제들이었다. 원정을 중단한 코모두스조차 자신을 검투사로 표상하고, 전제주의를 강화한 것은 군사적 역량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페르티낙스가 추대된 이유 역시 그의 군사적 명성이 근위대와 속주군단의 지지를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192년 이후에 근위대가 보여준 향방은 황제의 군사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황제권으로 그들을 제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근위대를 움직이는 것은 하사금과 방탕한 생활이었다. 그와 함께 192년 위기 속에 근위대와 속주군단의 갈등과 세력차이가 드러나 버렸다. 근위대는 세베루스가 변경불안 때문에 600여 명의 선발대만 데리고 진격해왔음에도 불구하고,[79] 자신들이 추대한 황제를 버리고, 제대로 된 전투조차 치러보지 못한 채 항복해버렸다.[80] 사실 그 이전에 폐

79) Dio Cassius 74.15.3.
80) Dio Cassius 75.1.1; Herodianus 2.12.1-3;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Didius Julianus* 8.1-9.

르티낙스를 살해한 직후에도 로마시의 민중이 두려워 성채로 들어가 문을 걸어 닫았던 근위대였다. 근위대의 군사력이 속주군단을 제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드러내어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193년의 위기를 통해 제위계승 방식의 불안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권력축의 위계가 극명하게 가시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제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개의 권력층이 유지하던 세력균형이 완전히 깨져 버렸다.

3. 193년 내전과 속주의 주체적 동향

193년의 내전은 2차 삼두정기나 69년의 내전과는 성격이 달랐다. 개인의 명성에 바탕을 두었던 옥타비아누스(Octavianus)와 안토니우스(Antonius), 오토와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의 내전과 달리, 193년 내전의 주인공들은 이전에는 두각을 드러내지 않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최후의 승자가 된 세베루스는 판노니아 수페리오르 총독으로서의 지위가 본격적인 군사경력으로는 처음이었으며, 특기할 만한 정치적 행보도 보이지 않던 인물이었다.[81] 즉 개개인이 황제감으로 명망 있는 인물들이었다기보다, 내전 당시 가장 강력한 속주군단을 이끌고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시리아와 판노니아, 브리타니아에는 각각 동일하게 3개의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세 황제 후보들은 속주와 각 군단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193년의 내전에서 각 군단과 속주민들의 주체적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하드리아누스 이후 군단병을 속주민으로 충원하기 시작하면서 속주군단의 토착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 세베루스가 황제로 선포되자, 곧이어 인근의 게르마니아(Germania), 모에시아(Moesia), 다키아(Dacia)의 총 12개 군단이 충성을 맹세했으며[82], 니게르의 황제 선포 소식에, 카파도키아(Cappadocia), 팔레스타인(Palestine), 아라비아(Arabia)의 8개 군단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83] 또한 티그리스(Tigris)와 유프라테스(Euphrates) 밖에서 태수와 왕자들이 축하와 함께 필요하다면 원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84] 당시 니게르가 머물고 있던 안티오크(Antioch)의 하층계급

81) 라이투스가 사전에 세베루스를 제위에 앉히기 위해 거사 2~3년 전에 그를 판노니아 총독에 앉혔다는 추측도 있었으나, 사실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Barnes는 근위대장 라이투스가 굳이 근위대와 가까운 율리아누스를 밀어내고 속주군단을 불러올 이유가 없으며, 세베루스의 행정가로서의 이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반란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사적 역량이 돋보이지 않던 세베루스를 그곳에 앉힌 것이 더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Barnes, p. 100.)

82) Dio Cassius 74.15.2-3; Herodianus 2.10.1;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5.1.

83) Dio Cassius 74.13.5; Herodianus 2.14.6-7;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Pescennius Niger* 2.1.

84) Herodianus 2.8.8.

청년들 중 많은 수가 충동적으로 군사모집에 응했다는 기록 역시 제국의 동방지역 속주의 대표자로서 니게르에 대한 이 지역 속주민들의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준다.[85]

그리하여 세베루스와 니게르의 전투는 서방과 동방의 대결이라는 성격을 띠었다. 시지쿠스(Cyzicus)전투에서 극적으로 세베루스가 승리하자 많은 동방 속주도시들이 세베루스를 지지하면서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안티오크, 니케아(Nicea), 비잔티움(Byzantium)이 계속해서 니게르를 지지한 반면, 니코메디아(Nicomedia), 페린투스(Perinthus), 라오디케아(Laodicea), 티레(Tyre), 베리토스(Berytos) 등은 세베루스 측으로 돌아섰다.

> 세베루스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그것의 즉각적인 효과는 동부 속주 모든 도시들에서 도시 간 갈등과 내부세력의 분파를 가져왔다. 그것은 당파심이나 도시 내부 경쟁자에 대한 질투로, 전쟁 중인 황제들 중 한 명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동포들에 대한 살육과 파괴 때문이었다. 지속적인 도시 내 갈등과 매우 강하게 성장하는 듯 한 경쟁자를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리스인들의 오래 지속된 약점이고 그리스의 힘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조직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상호 파괴적이었고, 그들은 마케도니아 지배와 로마의 노예가 되기에 쉬운 먹잇감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시기심어린 질투의 질병은 현재까지도 성행하며 도시들로 전해졌다. 시지쿠스에서의 전투 이후에 곧바로 비티니아의 니코메디아시가 세베루스편에 가담했고 사절단을 보내어 그들의 군대를 환영하여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니케아 사람들은 반대로 니코메니아에 대한 경쟁의식으로 니게르 군에 문을 열어 다른 편에 가담했다. 니게르가 비티니아로 보낸 수비대를 포함해 자신의 길을 가는 어떤 도망자라도 허용하면서, 두 도시들은 진영의 규모도 비슷하고 충돌 시에 거점이 되었다.[86]

헤로디아누스가 고질적 분열성으로 표현한 속주도시들의 동향은 한편

85) Herodianus 3.1.3.
86) Herodianus 3.2.7-9.

으로 속주도시의 성장과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정 초 속주는 '황제관할속주(provinciae Caesaris)'와 '로마인민관할속주(provinciae propriae populi Romani)'로 나뉘었고[87], 속주도시들 역시 다양한 위계로 존재했다.[88] 특히 속주도시 간 상이한 존재양식에는 황제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원로원에 진입하고자하는 속주상류층에게 있어서도 황제와의 관계가 중요했다.[89] 이 과정에서 속주시민들은 더 이상 로마의 피정복민이 아닌 로마제국민으로서 제국 내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주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193년의 내전 중에는 속주도시의 주체적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내전 과정에서 보복의 대상이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주목된다. 일부 동방의 도시들이 세베루스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그 중 라오디케아와 티레시의 주민들이 니게르의 지시로 모로코 출신 창병들에게 학살당했다.[90] 세베루스 역시 니게르와의 내전에서 승리한 후 도시들의 향방에 따라 특혜를 주거나 벌을 내렸다.[91] 이어진 파르티아원정(197~198년) 역시 내전 당시 파르티아가 니게르를 지지했던 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가졌다.

특히 속주도시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비잔티움의 경우가 주목된다. 디오는 내전과정을 서술하면서 비잔티움 공성전 부분을 매우 자세히 묘사했다.[92] 비잔티움은 초기부터 니게르를 지지했으며, 니게르의 죽음 이후

---

87) Vervaet은 제정 초 속주가 황제지배속주와 원로원속주로 나뉘어 있었으나, 점차 황제지배속주에 파견되었지만 원로원속주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총독들이 등장했고, 이것이 황제의 일원화된 지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F. J. Vervaet, "The reappearance of the supra-provincial commands in the late second and early third centuries C.E.", O. Hekster et al. ed., pp. 125-140.)

88)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황조 말에 이르면 속주도시들의 위계는 로마 시민권의 식민시, 로마 시민권의 자치도시, 라틴 시민권의 자치도시, 자신의 법제를 지닌 그리스적 도시, 제국 서부의 외국인 도시가 나타났다.(차전환, 「로마 제국의 중앙과 지방」, 『서양사론』 86(2005), pp. 5-34.)

89) Talbert, pp. 21-23.

90) Herodianus 3.3.4-5.

91) Dio Cassius 75.8.4, 안티오크와 비잔티움은 당시의 특권과 지위를 잃었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였던 라오디케아와 페린투스(Perinthus)가 이를 대신했다. 또한 티레는 전쟁 피해가 컸던 데에 대한 보상으로 영구적인 세금 면제와 함께 동맹시의 지위를 얻었다.(*Digest.* 50.15.8.3-6, 50.15.1.1-5.)

92) Dio Cassius 75.10.1-14.1.

에도 몇 년 동안 항복하지 않고 버텼다.[93] 세베루스가 니게르의 목을 보내는 등 항복할 기회를 주었음[94]에도 말이다. 즉 비잔티움이 지지한 것은 니게르 개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동방의 황제 후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잔티움에 대한 세베루스의 보복 역시 가혹했다.

> 비잔티움을 함락한 이후 (세베루스는) 그곳의 독립성과 제국에서의 자랑스러운 지위를 빼앗고, 속국으로 삼고, 시민들의 재산을 몰수했다. 그(세베루스)는 도시와 영토를 페린투스 사람들에게 주었고, 마치 시골처럼 다루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곳을 모욕했다.[95]

니게르와의 전투 이후에 이어진 알비누스와의 전투 역시 두 황제의 경쟁을 넘어 브리타니아 및 갈리아, 히스파니아의 서방 지역에 대한 판노니아를 비롯한 북부 지역 간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알비누스와의 내전 직후 알비누스파로 지목되어 죽음을 맞은 원로원의원들이 대부분 갈리아와 히스파니아출신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96]

속주도시들의 주체적인 동향은 속주를 아우르는 제국의 통합이 2세기 말에도 여전히 불완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도시의 자치를 광범위하게 보장했던 지배방식과 도시 간 특권의 위계는 속주간의 경쟁과 분열을 더욱 조장하고 있었다. 게다가 2세기 초부터 보조군단(auxilia)을 포함해 속주민의 군단 유입이 많아지면서 속주군단은 로마 제국군이라기보다 각 속주를 대표하는 군대가 되어갔다. 세베루스가 당면한 과제는 내전과정에서 가시화된 속주도시들의 분열을 통합하는 일이었다.

---

93) 비잔티움의 항복 시기와 관련해서는 디오와 헤로디아누스 및 『황제사』의 기록이 다르다. 디오는 비잔티움이 니게르의 패배 이후 3년간 버텼다고(Dio Cassius 74.12.1.) 묘사하여 196년 초로 기록했지만, 헤로디아누스의 기록과 『황제사』의 경우 195년 말로 본다. (Herodianus 3.6.9;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10.3.)

94) Dio Cassius 75.8.3; Herodianus 6.8-9.

95) Dio Cassius 75.14.3-4.

96)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12.1-8.

Ⅲ.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지배체제 개편과 도미나투스적 경향

1. 원로원의 약화와 원로원 권력의 이양

내전 초기 세베루스가 로마에 입성하여 원로원에게 보였던 193년의 태도와 내전이 끝난 197년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세베루스는 193년 원로원 연설에서 원로원의 인가 없이 원로원의원을 사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세베루스는 시민들의 환호와 원로원의 환영 속에 로마에 입성하자마자 유피테르 신전으로 가서 제사 의식을 마쳤다. 그는 황제들이 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다른 신전들에서의 제의까지 마친 뒤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원로원 의사당에서, 아주 정중하고 신뢰가 담긴 연설을 했다.
>
>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페르티낙스의 살해에 대한 복수를 위해 왔다. 내 역할은 공화정의 시작을 보장하는 것이며, 아무도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을 것이다. 밀고자들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치세를 지향하여 그의 모든 조치들을 보장하고, 페르티낙스의 이름과 정신을 본받아 시민들에게 진정한 번영이 보장될 것이다."[97]

위 연설문에서 세베루스는 원로원과 페르티낙스가 지향했던 공화정을

---

97) Herodianus 2.14.3. 디오 역시 같은 연설 내용을 남겼다.("...그(세베루스)는 과거 훌륭한 황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원로원의원도 사형시키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몇 가지 용감한 약속들을 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관련한 서약을 하고, 나아가, 그 같은 행위를 하는 황제나 조력자 모두 그 가족을 포함하여 공적(公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련 법령으로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이를 지키는 대신 최초로 어겼고, 많은 원로원의원을 죽였다. 실제로 그의 요청에 따라 이 법을 기초한 율리우스 솔론(Julius Solon)이 오래지 않아 살해되었다."(Dio Cassius 75.2.1.))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베루스는 이를 약속하듯 스스로를 원로원의 지지를 받았던 페르티낙스의 후계자로 자처하며 페르티낙스를 신격화하고 그의 이름을 취했다.[98] 또한 194년에 니게르와의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니게르파 원로원의원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섬으로 유배를 보낼지언정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99]

그러나 세베루스는 알비누스와의 내전이 마무리된 197년에는 29명의 명망 있는 가문출신 원로원의원들을 사형시키고 재산을 몰수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알비누스와의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할 무렵부터 극명하게 드러났다.

디오가 당시 자신을 포함한 원로원의원들이 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묘사했지만[100], 헤로디아누스는 세베루스가 니게르와의 전투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많은 원로원의원들이 알비누스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편지들을 보내 로마로의 진군을 권했다고 기록했다. 헤로디아누스는 원로원이 알비누스가 황제가 되는 것을 더 선호했는데, 그가 조상대대로 귀족혈통을 타고났고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01] 여기서 이야기되는 좋은 성품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황제사』에 등장하는 알비누스의 과거 연설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코모두스가 생전에 알비누스에게 카이사르의 칭호를 하사하자 이를 거절하며 자신이 이끌고 있던 브리타니아군단 앞에서 했다고 알려진 연설이다.

---

98) 세베루스가 집권 초기 페르티낙스를 계승하고자 했던 점은 주화 명각에서도 나타난다. 페르티낙스 시대 주화에서 나타나는 'SAECVLO FRAVGIFERO(풍요의 시대)'는 명각은 율리아누스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다가 세베루스의 집권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알비누스와 니게르의 주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C. Rowan, *Under divine auspices(*Cambridge, 2012), pp. 36-39.) 페르티낙스 계승을 표방하는 다른 의도와 관련하여 헤로디아누스는 "그(세베루스)는 페르티낙스의 이름을 취했다. 이는 단순히 일리리아 군대를 기쁘게 하려는 계산뿐 아니라 페르티낙스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로마인들의 승인을 얻으려는 희망에서였다."라 서술했다.(Herodianus 2.10.1.)

99) 디오는 니게르에게 후원한 개인이든 주민들이든 그 금액의 네 배를 추징하게 했고, 디오는 이것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Dio Cassius 75.8.4.); 비슷한 내용으로 Herodianus 3.4.7;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9.3., 9.6. 참조.

100) Dio Cassius 76.4.1.

101) Herodianus 3.5.2; 디오 역시 알비누스가 가문과 교육면에서 세베루스보다 뛰어났다고 전했다.(Dio Cassius 76.6.2.)

그러나 만약 로마인민의 원로원이 고대의 권력을 가졌다면, 그리고 만약 이 거대한 제국이 한 사람의 지배에 놓이지 않았다면, 제국의 운명이 비텔리우스나 네로, 혹은 도미티아누스의 손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 이제 코모두스에 대해서는, 그가 원로원을 경외했었다면 훨씬 더 나은 황제이지 않았을까! 네로의 시대까지도 원로원의 권력은 우월했다. 그리고 원로원들은 그 기반에 기대어 추잡한 왕자나 네로를 규탄하는 연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가 여전히 제국의 생과 사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을 때였을지라도 말이다. 그런 이유로, 나의 전우들이여, 나는 이제 코모두스가 나에게 수여한 카이사르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신이 부디 아무도 그것을 바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를! 원로원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고, 원로원이 프린켑스와 우리를 콘술로 인정하도록 하자.[102]

연설내용으로 볼 때 알비누스는 원로원에 의해 통치되는 공화정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내전과정에서 알비누스가 세베루스의 카이사르 제의를 곧바로 받아들인 점을 떠올리면 석연치 않다. 또한 디오와 헤로디아누스가 서술한 것처럼, 알비누스가 원로원의 지지를 받을 만큼의 배경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알비누스는 유력한 원로원가문도 아니었으며, 속주출신 의원이었다.[103] 만약 실제로 알비누스에 대한 원로원의원 다수의 지지가 있었다면, 단지 세베루스와 비교해 상대적이었거나, 갈리아 및 히스파티나아속주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게다가 위 연설은 당대 디오나 헤로디아누스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4세기 『황제사』에만 등장한다. 코모두스가 건재하던 시대에 속주총독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점이나, 공화정에 대한 이상이 속주군단에게 얼마나 호응을 받았을까 하는 면을 생각해보면, 알비누스가 원로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착안해 각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알비누스에 대한 『황제사』의

102)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Albinus* 13.5-10.
103) 『황제사』만이 알비누스의 구체적인 출신지로 아프리카 하드루메툼(Hadrumetum)임을 기록했다.(*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Albinus* 1.4.)

기록은 내전 당시 원로원의 다수 입장이 세베루스보다는 알비누스를 향하고 있었던 것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세베루스는 내전 중에 이미 원로원을 대신하여 속주군단을 정통성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는 195년에 메소포타미아군단의 이름으로 알비누스를 공공의 적으로 선포한 데서 시작한다.[104] 공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권한은 전통적으로 원로원에 있는 것이었다.[105] 또한 역시 군단의 이름으로 자신의 큰 아들인 바시아누스(Bassianus, 카라칼라(Caracalla, Marcus Aurelius Severus Antoninus, 재위 198~217년))에게 안토니누스라는 이름과 카이사르의 칭호를 부여했는데, 이것 역시 전통적으로는 원로원이 갖던 역할이었다.[106]

루그두눔(Lugdunum)전투에서 접전 끝에 승리하여 내전을 종식한 세베루스는 원로원에 대한 본격적인 복수에 착수했다. 일찍이 페르티낙스의 이름을 취했던 세베루스는 이제 원로원이 혐오했던 코모두스를 복권시켰다. 즉 원로원이 코모두스의 기록말살형(damnatio memoriae)을 취소하고 코모두스를 신격화하도록 강요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통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양자로 선언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형제에 해당되는 코모두스의 명예를 복원하는 의미였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코모두스의 신격화가 군단에 의해 먼저 선포되고 원로원에게는 추후 내전승리 소식과 함께 편지로 통보했다. 또한 세베루스는 알비누스의 시신이 도착하자 그의 머리를 베어, 로마로 보내라고 명령했다.[107] 반대파에 대한 잔인한 숙청은 원로원의원들의 반발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108]

---

104) Herodianus 3.6.8;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5.2-7, 디오의 기록에는 메소포타미아군단이 알비누스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알비누스와의 연속된 내전에 원로원의원들은 소극적으로 주시했으며, 로마시민들의 계속되는 내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만을 조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로원이 소외된 알비누스와의 내전에 대한 디오의 부정적인 감정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Dio Cassius 75.4.1-5.3.)

105) Talbert, p. 356.

106)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5.2-7, Herodianus 3.5.8n. 참조.

107) Dio Cassius 76.7.3; Herodianus 3.8.1;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6.6-7.

108) 디오가 이 사건을 두고, 세베루스가 훌륭한 지배자로서의 자질을 하나도 갖추지 못

로마시로 돌아온 세베루스는 다시금 스스로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자 코모두스의 형제로 선언하며, 코모두스에게 불명예를 안긴 원로원을 비난했다. 또한 과거 공화정 시기 반대파들에게 가혹했던 술라(Sulla), 마리우스(Marius), 아우구스투스의 혹독함과 잔인함을 높이 평가하고 노골적으로 찬사를 보냈다. 반면 반대파에게 관대했던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온화함을 폄하했다.[109] 그리고는 193년의 연설이 무색하게 재판도 없이 엄청난 수의 알비누스파 원로원의원들을 처형했다.[110]

원로원에 대한 탄압이 만약 디오나 헤로디아누스의 추측처럼 내전과정에서의 향방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197년의 처형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혹은 당시 근위대를 해체하고 자신의 군단으로 채운 것처럼, 원로원의 구성 자체를 자신을 지지하는 신진인물들로 변화시키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베루스 시대 전체적인 원로원의원의 지역구성이나 이탈리아출신 의원들의 특권은 대체로 계속 유지되었다.[111] 같은 시기 일리리아(Illyria)나 아프리카출신 의원의 비율이 많아졌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지역 의원들의 진출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112]

헤로디아누스는 세베루스가 193년의 약속을 깨면서까지 강경하게 대처한 이유가 군대개혁을 위한 재정확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13] 하지만 니게르와의 전투 이후에는 니게르파 의원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후원한 금액의 네 배를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요구는 있었으나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114] 반면 알비누스파 의원들을 처형한 것은 금전적 이유를 넘어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파 원로원의원뿐 아니라, 원로원 자체에 대한 탄압은 세베루스가 원로원을 자신의 지배체제의 핵심으로 바라보지 않았음을

했음을 보여준다고 한데서도 그가 느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Dio Cassius 76.7.8.)

109) Dio Cassius 76.8.1.

110) Dio Cassius 76.8.3; Herodianus 3.8.2-3.

111) Talbert, p. 76.

112) 세베루스 치세에 아프리카출신 원로원의원은 8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최초의 이집트출신 원로원의원으로 알려진 클라우디아누스(Tiberius Claudius Claudianus)는 193년에 이미 속주군단장이었다.(Barnes, p. 97.)

113) Herodianus 3.8.7.

114) Dio Cassius 75.8.4.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그는 원로원의원의 구성을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원의 기능과 역할 자체를 약화시켜나갔다. 원로원 자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구성의 변화를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세베루스가 원로원을 약화시킨 정책의 배경은 원로원 자체의 성격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미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갈리아(Gallia) 출신을 원로원에 소속시키면서 원로원의원은 공화정 로마 시대의 귀족출신이어야 한다는 불문율은 깨졌다. 또한 원로원의 재산자격 기준의 상승과[115] 이탈리아 지역의 경제적 쇠퇴로 제국 초부터 황제들은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원로원의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했다.[116] 하드리아누스 재위기에 이미 공화정기의 명문가문 출신 원로원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117] 이후 몇 세기 동안 원로원은 기사계층에서 충원되었고, 많은 수가 속주출신이었다.[118]

다음은 해먼드의 연구를 토대로 원로원의원들의 시기에 따른 출신지역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베스파시아누스 재위기부터 3세기에 이르기까지 원로원의원들의 출신지역과 수가 정리되어 있다.

---

115)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 재산자격을 800,000 세스테르티우스에서 1,200,000 세스테르티우스으로 높였다.(Suetonius, *Augustus,* 41; Talbert, pp. 10-11.)

116) 타키투스의 『연대기』 에는 티베리우스 재위기인 16년에, 원로원의원이었던 호르탈루스(Hortalus)가 황제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Tacitus, *Annales,* 2.37-38) 또한 하드리아누스는 빈곤한 의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의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Suetonius, *Hadrianus,* 7.9.) 이와 관련하여 Talbert, pp. 49-51. 참조.

117) M. Hammond, “Composition of the Senate, 68-235”,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47(1)(1957), p. 75.

118) *Ibid.,* p. 76.

[표 1] 1~3세기 원로원의원의 출신지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황제 / 출신지		Vesp.	Domi.	Traj.	Hadr.	Anto.	M. A.	Comd.	Sept. & Cara.	Elag.	3세기
1	전체	수	386	404	428	332	355	342	259	**937**	471	548
		출신 파악	178	163	152	156	167	180	114	**479**	238	265
		비율	46.1	40.3	35.5	47.0	47.0	52.6	44.0	**51.0**	50.0	48.0
2	이탈리아	수	148	125	100	88	96	98	63	**204**	113	116
		비율	83.2	76.6	65.8	56.4	57.5	54.4	55.3	**42.6**	49.5	44.0
3	속주	수	30	28	52	68	71	82	51	**275**	125	149
		비율	16.8	23.4	34.2	43.6	42.5	45.6	44.7	**57.4**	52.5	56.0
3-1	서부	수	21	29	29	31	17	8	4	**41**	17	23
		비율	70.0	76.3	55.8	45.6	23.9	9.7	7.8	**15.0**	13.6	15.4
3-2	동부	수	5	6	18	25	33	44	31	**157**	72	86
		비율	16.7	15.8	34.6	36.8	46.5	53.7	60.8	**57.0**	57.6	57.7
3-3	아프리카	수	3	2	3	11	19	25	16	**72**	33	34
		비율	10.0	5.3	5.8	6.2	26.8	30.5	31.4	**26.0**	26.4	22.9
3-4	달마시아	수	1	1	2	1	2	5	0	**5**	3	6
		비율	3.3	2.6	3.8	1.4	2.8	6.1	0.0	**2.0**	2.4	4.0

출처 : M. Hammond, “Composition of the Senate, 68-235”,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47(1)(1957), p. 77. 참조 및 재구성.

해먼드가 자신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표 1]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어떠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출신지가 밝혀진 의원들의 수만 봐도 시대별로 매우 상이하여 코모두스 시대에 114명에 비해, 세베루스와 카라칼라 시대에는 479명으로 급등한다. 따라서 시대별 추이에 대한 단순 비교는 힘들다. 비율 역시 출신지가 밝혀진 의원들의 경우 50%를 전후하여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50%의 변수가 너무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제정시기 3세기까지의 전반적인 원로원 구성변화 추이를 짐작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119]

[표 1]의 2-①을 보면, 베스파시아누스 시대 83.2%에 육박하던 이탈리아출신 원로원의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⑦과 2-⑧을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출신 원로원의원 비율이 세베루스 시대에 10% 넘게 감소하는데, 이 점은 그가 반(反)이탈리아 정책을 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세베루스 집권기에 이탈리아출신 가문들의 특권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마찬가지로 세베루스와 동향인 아프리카출신이나 아내 율리아 돔나의 고향이 있는 동부지역 속주출신 의원의 약진도 눈에 띄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감소했다(3-2-⑦,⑧). 또한 반이탈리아 정책을 펼쳤다고 보기에는 10% 넘는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출신 의원의 42.6%라는 비율은 여전히 상당한 것이다(2-⑧). 그러므로 이 시기 이탈리아출신 의원의 감소는 내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지속적인 정책의 결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제정 초부터 꾸준히 이탈리아출신 의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세베루스 시대에 처음으로 속주출신 의원의 비율이 이탈리아출신을 압도하기 시작했다(2-⑧, 3-⑧). 반대로 베스파시아누스 시대부터 꾸준히 속주출신 의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3-①～⑥), 하드리아누스시기까지도 서방지역출신 의원의 비율이 우세하다가(3-1,2,3-①～④), 이후에는 동방과 아프리카출신의 약진이 눈에 띈다(3-1,2,3-⑤～⑩).

---

119) *Ibid.,* pp. 77-78.

원로원의원들의 입회자격이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탈리아출신 의원들의 지속적인 감소 및 속주출신들의 증가, 특히 동방과 아프리카출신의 증가는 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이탈리아의 쇠퇴를 반영하는 것이다. 3세기경에 이르면 속주민들에게 로마제국은 로마시와 이탈리아만의 소유가 아니었다. 디오를 비롯한 그리스출신 엘리트들에게 로마시는 단지 황제의 행정기반으로서 제국의 수도일 뿐이었다.[120]

한편 늘어나는 속주출신 의원들을 로마화하려는 다양한 노력[121]에도 불구하고, 출신지역의 다양화로 인해 원로원의 통합체로서의 성격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2세기부터 트라야누스나 하드리아누스 등 황제들이 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소수의 원로원의원들만 자문을 위해 로마 밖으로 대동하는 일이 많았고, 이 역시 유기체적인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저해하고 있었다.[122] 게다가 속주출신 의원의 많은 수는 아직 로마시에 뿌리 깊은 지지기반을 갖지 못한 호모 노부스였다. 세베루스의 치세가 끝나면 원로원의원들 중 한두 세대 이상 된 가문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점차 원로원의원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제정 초만 해도 핵심정치기구였던 원로원은 점차 로마시 내에 폭력을 동반한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기 바쁜 무력한 기구가 되어갔다.[123]

즉, 세베루스가 원로원 약화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이미 원로원은 정치적 영향력을 잃고 있었다. 192년 코모두스의 암살과 193년 내전과정에서 원로원의 무력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세베루스의 원로원정책을 단순히 내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반대파에 대한 보복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세베루스가 정치적 위기상

120) Blois, p. 361. 이와 관련하여 2세기 초 아리스티데스(Aelius Aristides)의 『로마 송사(eis Romem)』를 통해 로마제국의 속주 지배원리와 그리스 엘리트층이 로마제국 시민으로서 가진 정체성에 대해 살핀 김경현의 연구가 있다(김경현,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제국의 지배원리」, 『역사학보』 217, 2013, pp. 3-36.).

121) 속주출신 원로원 의원에 대한 로마화 노력의 일례로 속주출신이 원로원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일정기간 로마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Talbert, p. 442.)

122) *Ibid.,* p. 152.

123) *Ibid.,* p. 149.

황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낸 원로원을 목도하고, 그에 대한 조치로 원로원이 가지고 있던 정치권한들을 다른 정치기구에 재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베루스는 특히 행정과 대외정책 운영에 있어서 '황제자문회의(consilium principis)'를 강화시켰다. 황제자문회의는 제정기 이전부터 흔적이 확인되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가 '신성회의(sacrum consistorium)'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하기 전까지 일관된 명칭 없이 비공식인 형태로 존재해 왔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황제자문회의는 황제의 행정을 보좌하는 정치적 측근의 성격을 띠며 이원적인 형태로 존재했다. 하나는 '원로원위원회(consilium)'로 황제자신 및 콘술(consul), 프라이토르(praetor), 아이딜리스(aedilis), 콰이스토르(quaestor), 호민관(tribunus plebis) 등과 15명의 원로원의원으로 구성되었다.[124] 이들은 황제와 함께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원로원회의 상정 전에 사안을 미리 준비하는 기능을 했다.[125] 아우구스투스 시대 또 다른 형태의 자문회의로는 황제의 친구들이라는 의미의 '아미키 프린키피스(amici principis)'가 있다. 여기에는 아그리파, 마이케나스(Gaius Maecenas) 등 아우구스투스의 측근들로 구성되었으며 공공성이나 주기성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의 조언이 황제의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크룩(J. A. Crook)은 아우구스투스와 4세기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자문회의가 가진 근본적인 차이가 전자가 황제의 권위(auctoritas)를 뒷받침하는 비공식적인 수단이었다면, 후자는 도미나투스체제의 공식적 대변자라는 점이라고 보았다. 그는 황제자문회의의 공식화가 프린키파투스체제와 도미나투스체제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식했다.[126] 또한 콘스탄티누스의 신성회의는 본격적으로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입법, 사법, 행정이 한 번에 운용되었는데, 크룩은 이러한 황제자문회의의 행정적 역할 확대가 적어도 세베루스 재위기에 확연히 나타났던 것

124) J. A. Crook, *Consilium Principis*(Cambridge, 1955). p. 8.
125) *Ibid.,* p. 10.
126) *Ibid.,* p. 103.

으로 보았다.[127] 이는 당시 근위대장의 임명에서도 드러난다. 세베루스는 205년에 군인출신의 근위대장 플라우티아누스(Gaius Fulvius Plautianus)가 반역 혐의로 살해된 이후, 저명한 법률가인 파피니아누스(Aemilius Papinianus)를 근위대장에 임명했다. 세베루스 역시 법률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사법적 결정에 황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128]

세베루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법률가-근위대장의 경향은 3세기에도 지속되었다. 이후 파울루스(Julius Paulus Prudentissimus), 울피아누스(Gnaeus Domitius Annius Ulpianus) 등 로마시대 뛰어난 법률가들이 세베루스조의 근위대장을 맡아 황제자문회의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4세기에 이르러서는 근위대장에 해당하는 직함이 마기스테르 오피키오룸(magister officiorum)으로 바뀌고, 기존의 군사적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는 대신, 행정 및 사법업무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콘스탄티누스는 밀비우스 다리(pons Milvius) 전투 이후 기존의 근위대를 없애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미 시도한 바 있는 스콜라이(scholae)라는 이름의 호위부대를 만들었다. 이 호위부대는 이제 행정수반이 된 마기스테르 오피키오룸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129]

그랜트는 세베루스 집권기에 나타난 법률가-근위대장의 경향이 근위대장 플라우티아누스의 역모 사건 이후 근위대장의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했다.[130] 하지만 근위대장의 역모를 막기 위해 오히려 그의 사법적 영역을 늘리고, 황제자문회의를 주도하게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조치는 플라우티아누스의 죽음 이후 새로운 근위대장을 임명해야하는 시점에서 근위대의 확대된 행정적 역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11년 세베루스가 브리타니아원정 도중 에보라쿰(Ebŏrăcum)에서 지병으로 사망하자, 카라칼라와 게타(Publius Septimius Geta, 재위 209~211년)의 갈등이 심화되고 궁전에서도 각자의 공간에 따로 머물 정도로 대

127) *Ibid.,* p. 65, p.362.
128) *Ibid.,* p. 79.
129) Southern, p. 179.
130) Grant, p. 16.

치했다. 이 때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움직인 것은 원로원이 아니라 아버지 세베루스의 황제자문회의였다.

> 아버지(세베루스)의 황제자문회의가 소집되고, 그들은 어머니(율리아 돔나)의 집에 모여 제국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안토니누스는 유럽의 모든 속주들을 맡고, 게타는 아시아로 알려진 대륙과 유럽 반대편에 있는 모든 영역을 맡기로 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대륙의 분할이라고 했다. 그 사이에 흐르는 프로폰티스(Propontis, 現 마르마라해)가 생겼을 때 신들이 이미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안토니누스는 비잔티움에 그의 군대를 정주시키고, 게타는 비티니아(Bithynia)의 칼케돈(Chalcedon)에 정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두 군대는 서로 마주보고 침략으로부터 서로의 영역을 보호하게 된다. 또한 유럽출신의 원로원의원들은 로마에 있고, 제국 동부지역 출신의 원로원의원들은 게타와 함께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게타는 안티오크나 알렉산드리아가 로마시보다 그리 작지 않은 그의 제국의 적절한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쪽의 리비아(Libya), 모로코(Morocco), 누미디아(Numidia)가 안토니누스에게 속하고, 동쪽의 모든 영토는 게타에게 속했다. 제안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슬픔의 표현으로 고개를 떨군 채 찬성했다.[131]

위 사료는 헤로디아누스가 묘사한 황제자문회의의 제국분할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국분할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이전에 이미 구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논의된 분할안의 구체적인 권한과 관할영역이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 갑작스레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베루스가 생전에 두 아들에게 모두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내렸고[132] , 건강악화로 자신의 죽음을 몇 년 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세베루스가 이미 자신의

---

131) Herodianus 4.3.7-9.

132) 세베루스 치세 말에는 공식적으로 아우구스투스가 셋이었다. 이는 공동 황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최초의 공동 황제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치세 초에 의형제인 루키우스 베루스(Lucius Aurelius Verus, 재위 161-169년)를 공동 황제로 임명한 선례가 있다.변경위기로 황제가 전선에 자주 출정하는 상황에서 내치를 보완하고 전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제위계승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루스가 일찍 낙마사고로 사망하면서 공동 황제의 역할이 명확하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Verus* 1.3-4.)

사후 제국운영의 방안을 황제자문회의에서 논의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11년의 제국분할 계획은 모후인 율리아 돔나의 반대로 보류되었고, 형제들은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끝내 게타를 살해한 카라칼라는 로마 인근의 군대로 몸을 숨겨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군대가 카라칼라를 유일한 황제로 선포했다.[133] 이후 원로원회의를 소집하지만 제위에 대한 통보일 뿐 그들로부터 권위를 보장받는 과정은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생전의 게타와 긴밀했던 원로원의원들을 처형하기 위한 것이었다.[134]

원로원은 세베루스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잃어갔다. 행정과 사법의 많은 부분이 황제자문회의에 넘겨졌으며, 이미 내전 과정에서부터 황제의 임명과 공적의 선포는 군단에 의해 정통성을 얻었다. 세베루스의 원로원회의 참석 기록은 205년 플라우티아누스 처형 이후 소집한 것이 유일했다.[135] 이마저 당시 플라우티아누스의 역모 의혹에 관련된 의원들을 응징하고 나머지 의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었다.[136] 점차 원로원은 황제의 통치를 찬양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형식적인 의례기구로 전락했다.[137]

그 외에도 원로원이 가진 입법권의 경우, 몸젠은 3세기에 이르러 '원로원 결의(senatus consultum)'가 중단되고, 아마도 세베루스 시기부터 '황제 법령들(imperial decrees)'로 대체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138] 최근에 사료가 보충되면서 발레리아누스(Publius Licinius Valerianus, 재위 253-260년) 집권기에도 원로원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139], 원로원의 입법권이 세베루스 시대를 기점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133) Herodianus 4.4.8.
134) Dio Cassius 78.3.3-4; Herodianus 5.6.1.
135) Talbert, p. 183.
136) Dio Cassius 77.5.1-3.
137) 디오 기록 중 원로원이 황제의 강요에 의해 "그(세베루스)가 통치를 잘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간다."고 찬양한 일화가 대표적이다.(Dio Cassius 75.8.9.)
138) 몸젠은 Fontes Iuris Romani Anteiustiniani 1, pp. 237-300에 근거해 178년에 마지막 원로원 결의가 기록된다고 보았다.(Mommsen, p. 363.)
139) Talbert, p. 450.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세베루스는 원로원의원에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일도 경계했다. 원로원 신분과 군사적 명성이 결합하는 것은 현직 황제에게 위험한 일이었다. 아래 표는 멘넨의 연구를 토대로 세베루스 시기 내전과 대외원정에서 세베루스가 이끌었던 군단의 최고사령관들의 출신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출신배경은 명망 있는 가문출신의 '원로원'과 원로원내에서 다소 낮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 '호모 노부스', 그리고 '기사'로 구분하였다.

[표 2] 세베루스 시대 군단사령관의 계층별 구성

출신 / 시기	원로원	호모 노부스	기사
193년 세베루스 지지	C. Albinus F. Cilo J. Laetus	J. Alexianus J. Castinus M. Maximus S. Geta	V. Valerianus
니게르 원정 (193-194)	F. Cilo H. Gentianus J. Laetus	C. Candidus C. Anullinus	V. Valerianus
알비누스 원정 (195-197)	F. Cilo H. Gentianus J. Laetus	C. Candidus C. Anullinus J. Alexianus M. Maximus S. Geta V. Lupus	J. Postumianus
브리타니아 원정 (208-211)		A. Senecio J. Alexianus O. Adventus	J. Postumianus

출처 : I. Mennen, *Power and Status in the Roman Empire AD 193-284*(Leiden, 2011), pp. 194-215 참조 및 재구성.

세베루스는 내전 과정에서 정통성의 획득과 재정지원을 위해 원로원 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193~197년의 내전 중에는 군단지휘관에 원로원출신들이 다수 보인다. 특히 기존에는 원로원 하위계층으로 고급 지휘관직에 오르는 일이 드물었던 호모 노부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게타(Septimius Geta)나 알렉시아누스(Julius Alexianus)는 세베루스와 혈족관계에 있는 인물들이었다.[140]

그런데 멘넨은 198년, 명확히 전말이 밝혀지지 않은 라이투스(Julius Laetus)의 역모사건을 기점으로 내전과정에서 활약했던 기존 원로원출신 지휘관들의 군사적 경력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141] 이후 지휘관들은 부사관이나 부사령관 출신의 기사계층출신이 주로 임명되었다. 또한 200년 경 시리아순방 당시 인연을 맺은 세네키오(Alfenus Senecio)와 그를 통해 알게된 아드벤투스(Oclatinius Adventus), 혈족관계이자 측근인 알렉시아누스를 제외하고는 호모 노부스를 포함한 원로원출신 지휘관들이 모두 물갈이되었다.[142]

이렇듯 세베루스 재위기를 거치면서 원로원의 위상이 크게 변했다. 전쟁을 선포하고, 공적을 명명하는 등의 권한이 군대로 넘겨졌고, 기타 주요정책 결정과 사법적 역할의 대부분은 황제와 근위대 및 황제자문회의로 옮겨졌다. 입법과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상실해 갔다. 재위 기간 내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원로원 약화정책은 단순히 원로원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미 그 이전에 진행된 원로원의 정치적 무력화가 193년 내전과정에서 가시화되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원로원의 권한들을 점진적으로 다른 정치기구와 신진계층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대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원로원이 약화되는 것과 반대로 황제자문회의와 근위대의 정치적 역할이 커졌고, 자연스럽게 황제 중심의 지배체제 강화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세베루스는 이제 황제 중심 지배체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했다.

---

140) *Ibid.,* p. 215.
141) *Ibid.,* p. 214, Dio Cassius 76.10.2-3. 참조.
142) Mennen, p. 215.

2. 황제와 황가의 신성화와 전제적 이미지 구축

코모두스 치세 말에 있었던 두 차례 로마시의 대형화재[143]로 소실된 건물들이 많았고, 세베루스는 이를 기회로 엄청난 건축 사업을 벌였다. 다음은 디오가 세베루스의 활발한 건축 활동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다.

> 그(세베루스)는 상당수의 오래된 건물들을 복구하고 마치 자신이 사재(私財)를 통해 그것들을 처음 세운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는 또한 엄청난 돈을 또 다른 건물을 정비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써버렸다. 예를 들어 그는 거대한 크기의 디오니소스와 헤라클레스 신전을 지었다.[144]

디오의 서술에서 그렇지 않아도 빈곤한 국가재정을 건축 사업에 쏟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느껴진다. 세베루스가 재정적으로 무리한 상황임에도 건축 활동에 주력한 것은, 그가 이를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식자(識字)층이 한정되어 있던 고대사회에서 건축이나 주화 등은 효과적인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전파하는 수단이었다. 로마제국의 경우에도 당시 라틴어나 그리스어는 로마제국 내 소수의 상류층에서만 통용되었으며, 대부분의 속주민들은 토착어를 사용하거나 문맹이었다. 그리하여 디오나 헤로디아누스의 서술을 접하는 독자들의 범위보다 주화나 건축을 통한 선전을 접하는 대상이 훨씬 광범위했다.

상기한 이유로 로마제정기 속주지배에 있어 비문헌 매체들은 제국민들에게 황제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식시키기에 특히 유용했다.[145]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베스파시아누스 등 새로운 왕조나 질서를 개창하고자 하

---

143) 188년에 발생한 화재에 관해서는 Eusebius, via Jerome, *Chronicon,* 209., Orosius, *History* 7.16.3., 192년 화재는 Dio Cassius 72.2.4; Herodianus 1.14.2-6. 참조.

144) Dio Cassius 77.16.3.

145) 황제들은 주화의 발행 타입을 직접 선택했다.(Suetonius *Augustus*, 104. 12; Nero 25.1; Dio Cassius 67.25.3. 등) 건축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률가 Macerinus는 공공지출에서 황제의 인가가 없는 건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Digest* 50.10.3.2. *Macerinus.*)

는 황제들은 특히 공공건물 건축에 열을 올렸다. 마찬가지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세베루스 역시 건축과 주화 등에 그가 표방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으려 했던 것이다.

1) 제위와 연계된 리베르 파테르-헤라클레스-유피테르의 위계 구축

내전 중에 심각한 황제권의 위기를 경험한 세베루스에게 강력한 황제상이 절실했다. 그는 신의 수호를 받는 황제상에서 나아가, 살아있는 신이 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베루스가 내전 시기부터 스스로와 연결시켰던 신은 헤라클레스였다. 202년에 제작된 [그림 1]의 메달 이미지 속에서 세베루스는 머리에 사자 가죽을 쓴 헤라클레스로 표현되었다. 표현형식은 코모두스의 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추측된다. 코모두스가 이미 생전에 자신을 헤라클레스(Hercules)라 칭하고, [그림 2]와 같이 사자 가죽을 머리에 쓰고 곤봉을 든 헤라클레스의 현신으로 스스로를 표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사자 가죽을 쓴 세베루스 메달[146]

[그림 2] 사자 가죽을 쓴 코모두스 데나리우스[147]

---

146) Marsden, p.4, Fig.2. 재인용. 그 외 사자가죽을 걸친 세베루스 주화 도상은 H. Mattingly, R. A. G., Carson ed., *Coins of the Roman Empire in the British Museum* 5(London, 1950), *Septimius Severus* 192-192a., H. Mattingly, E. A. Sydenham ed., *Roman Imperial Coinage* 4a(London, 1936), 155a, 161b. 참조.

147) *Roman Imperial Coinage* 3 *Commodus* 252, 이미지 출처 : http://numismatics.org/ocre/results?q=Commodus+252, 그 외 *Roman Imperial Coinage* 3 *Commodus* 247, 250-4, 616, 629, 634, 637-40, 643-5. 참조.

헤라클레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세베루스가 자신의 정치적 메세지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신이었다. 헤라클레스는 여러 괴물들로부터 인간을 수호했던 인간의 보호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즉 내전과 변경의 위협으로부터 로마를 보호하는 존재로 세베루스를 표상하기에 적절했다.

한편 내전 중에 발행된 주화 이미지에는 헤라클레스가 리베르 파테르(Liber Pater)와 함께 나타난 것이 많다. 전형적인 형태가 194년에 발행된 아래 주화와 같이 앞면에는 세베루스의 두상이, 뒷면에는 술병과 지팡이를 든 리베르 파테르와 곤봉과 사자 가죽을 든 헤라클레스가 나란히 표현된 형태이다. 두 신의 이미지가 같은 주화에 함께 나타나는 것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경향이었다.[148]

[그림 3] 헤라클레스-리베르 파테르 아우레우스[149]

리베르 파테르는 헤라클레스와 함께 최고신 유피테르(Jupiter)의 아들이다. 게다가 리베르 파테르는 세베루스의 출신지인 렙시스 마그나의 수호신이며, 신화 속에서 동방원정을 했던 신이다. 리베르 파테르의 동방과 관련된 속성은 세베루스의 니게르와의 내전과 파르티아 원정을 연상시킨다. 한편 헤라클레스는 세베루스 가문의 수호신이면서, 지브롤터 해협의 '헤라클레스 기둥' 신화와 결합되어 서방지역의 문명화를 의미하기도 한

148) Rowan, p. 46.

149) *Roman Imperial Coinage* 4 *Septimius Severus* 25., 이미지 출처 : http://numismatics.org/ocre/results?q=Septimius+Severus+25.

다.[150] 즉 리베르 파테르와 헤라클레스는 세베루스의 출신지와 연결되면서도, 각각 동방의 니게르와 서방의 알비누스를 평정한 193년 내전의 승리를 표상할 수 있다.

특히 리베르 파테르의 단독 이미지는 194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니게르와의 내전이 끝나는 해였다([그림 4]). [그림 5]는 마찬가지로 알비누스의 군대를 평정한 197년 경 발행된 데나리우스로, 앞면의 월계관을 쓴 세베루스의 옆얼굴과 함께 뒷면에 곤봉과 활을 든 헤라클레스가 단독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4] 리베르 파테르 단독 데나리우스[151]

[그림 5] 헤라클레스 단독 데나리우스[152]

150) E. D. Desnier, *The Making of a Christian Empire: Lactantius & Rome*(Ithaca; London, 2012), p. 760.

151) *Roman Imperial Coinage* 4 *Septimius Severus* 32.,
이미지 출처 : http://numismatics.org/ocre/results?q=Septimius+Severus+32,
그 외에 79, 97, 111, 488. 등 참조.

리베르 파테르와 헤라클레스 이미지의 강조는 204년 백년제(Saeculum)에서도 나타났다. 고대전통에서 유래한 백년제는 1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것[153]으로 의례 과정에서 각 황제들은 자신의 치세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신을 강조하곤 했다. 110년이라는 긴 주기 때문에 특정 신이 전통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고, 그때마다 각 시대를 대변하는 신들이 표상되었다. 기원전 17년 백년제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아폴로(Apollo)를 부각시켰다. 88년 백년제에서 도미티아누스가 내세운 신은 미네르바(Minerva)였다.[154] 마찬가지로 세베루스가 204년에 선택한 신은 헤라클레스와 리베르 파테르였다.[155] [그림 6]은 당시 발행된 주화다. 앞면에는 'PIUS AUG'라는 명각과 함께 세베루스의 두상이 보이고, 뒷면에는 백년제 기념주화임을 나타내는 'SAECVL'과 함께, 리베르 파테르와 헤라클레스가 함께 그려져 있다.

[그림 6] 백년제(204년) 기념 아우레우스[156]

---

152) *Roman Imperial Coinage* 4 *Septimius Severus* 97.,
이미지 출처 : http://numismatics.org/ocre/results?q=Septimius+Severus+97.

153) 백년제를 개최하는 주기는 두 가지의 체제로 진행되었다. 로마건국 800주년이었던 47년 이후 100년마다 이어지는 147년, 248년의 주기와 공화국축제(기원전 249년, 기원전149년 혹은 146년)에 기반을 둔 110년을 단위로 한 주기이다.

154) Rowan, pp. 54-57.

155) Lusnia p. 114.

156) *Roman Imperial Coinage* 4 *Septimius Severus* 257.,
이미지 출처 : http://numismatics.org/ocre/results?q=Septimius+Severus+257,
그 외 763b, 764a, 765; *Roman Imperial Coinage* 4, *Caracalla* 474, 421. 참조.

코르도바나는 세베루스의 개선 기념 건축 곳곳에 장식된 메두사(Medusa)의 머리조각 역시 헤라클레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157] 렙시스 마그나의 세베루스 포룸(forum novum)과 바실리카(basilica)가 대표적이다. 메두사가 여신 아테나(Athena)의 아름다움을 폄하하고 교만했던 것에 대한 벌로 괴물이 되었다가 헤라클레스에 의해 머리를 잘렸던 신화와 관련하여, 코르도바나는 메두사의 머리가 교만(superbia)에 대한 응징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즉 개선을 기념하며 세워진 건축에 표현된 메두사의 머리는 내전 중에 세베루스의 의해 참수된 니게르와 알비누스의 교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반역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158]

내전 중에 유용한 메타포로 활용된 헤라클레스와 리베르파테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점차 제위계승 체제로도 연결되었다. 세베루스가 헤라클레스로 형상화되던 시기에 카이사르였던 아들 카라칼라는 리베르 파테르와 연결되곤 했다. 치세가 안정되어가던 200년대 초부터는 다음 [그림 7] 같이 세베루스가 자신을 천둥과 홀을 든 유피테르로 표현하는 것이 자주 눈에 띈다. 세베루스 집권 초기에도 유피테르 주화가 있었지만, 유피테르가 단독으로 표현되었던 것과 달리 200년대부터는 유피테르 양 옆에 두 아들의 이미지가 함께 새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세베루스가 유피테르로 형상화되는 대신 카라칼라가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를 이어받았다. 그리하여 210년에 발행된 주화에서 카라칼라가 헤라클레스의 관을 쓰고 있는 한편, 이번에는 게타가 리베르 파테르로 형상화 되었다.[159] 즉 세베루스-카라칼라-게타로 이어지는 혈통적 제위계승체계가 유피테르-헤라클레스-리베르 파테르로 표상되어 신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157) Cordovana, pp. 56-75.
158) *Ibid.,* p. 70.
159) *Roman Imperial Coinage* 4 *Septimius Severus* 60b.

[그림 7] 유피테르 데나리우스[160]

살아있는 황제의 신격화와 제위계승을 연결시킨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세베루스가 주력했던 것은 혈통적 제위계승방식의 안정이었다. 트라야누스 시기 小플리니우스(Gaius Plinius Caecilius Secundus)는 「찬가(*Panegyricus*)」에서, 폭군이 아닌 로마시민들을 위한 황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네르바와 트라야누스의 선례처럼 양자제가 이상적이라고 보았다.[161]

하지만 모티머(G. R. Mortimer)는 오현제 시기조차 온전한 양자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162] 양자제가 이루어졌다는 오현제 시기의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공교롭게도 모두 아들이 없었다. 네르바는 근위대 통제를 위해 가장 강력한 속주군단 사령관이었던 트라야누스를 지명을 해야 했으며, 하드리아누스는 아들이 없던 트라야누스의 조카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코모두스에게 제위를 물려준 것은 부성이 강해서라기보다 오현제 중 유일하게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우구스투스 시기부터 이미 비공식적으로 왕조적, 혈통적 계승방식이

160) *Roman Imperial Coinage* 4 *Septimius Severus* 233,,
이미지 출처 : http://numismatics.org/ocre/results?q=Septimius+Severus+233,
그 외에 240, 243. 참조.

161) Plinius, *Panegyricus* 7.6.

162) G. R. Mortimer, "Second Thoughts on the Imperial Succession from Nerva to Commodu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67(1936), pp. 47-54.

존재했지만, 여전히 원로원의 1인자로서의 황제라는 이상이 유효했다. 아우구스투스가 원로원과의 병존을 위해 구축한 정무관으로서의 황제상은 제정 초부터 혈통적 계승자인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코모두스의 폭군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최선자로서의 황제 이미지는 항상 또 다른 실력자의 도전 가능성을 안고 있었고, 내전의 빌미가 되었다. 그리하여 제위계승의 안정을 위해 세베루스는 혈통적 계승방식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했다. 알비누스와의 내전을 시작하던 196년에 7살밖에 안 된 아들 카라칼라에게 카이사르의 칭호를 부여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163] 유피테르-헤라클레스-리베르 파테르로 이어지는 신성화의 위계는 혈통적 계승 확립과정과 밀접하게 접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황가의 신성화

혈통적 승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황조의 안정이 바탕이 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인물의 신성화가 세베루스의 가족에게도 적용되었다. 황제가 황실 구성원과 함께 등장하는 모습은 세베루스 재위기 도상의 특징 중 하나다. 아래 [그림 8]처럼 앞면에 세베루스와 뒷면에 율리아 돔나와 두 아들이 함께 새겨진 형태가 전형적이다.

[그림 8] 세베루스 황가 아우레우스[164]

163)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10.3-6., *Caracalla* 3.2; T. Mommsen et al. ed., *Corpus Inscriptionum Latinarum* 8(Berloini, 1863-1936), 9317.

164) *Roman Imperial Coinage* 4 *Septimius Severus* 175,
이미지 출처 : http://numismatics.org/ocre/results?q=Septimius+Severus+175.

로마시의 세베루스 개선문에는 전임황제들의 개선문과 마찬가지로 전쟁 장면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데, 세베루스의 경우 카라칼라와 게타의 모습이 함께 새겨진 장면이 많다.[165] 특히 렙시스 마그나에 있는 개선문의 개선식 장면에는 헤라클레스와 리베르 파테르가 새겨진 전차 위에 세베루스 외에 두 명이 함께 그려져 있다([그림 9]).

일반적으로 기존 개선식 묘사에서 전차에는 보통 황제가 홀로 타고 있다. 트라야누스의 개선이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것을 참고해볼 수 있다. 세베루스의 좌우로 세 사람이 함께 전차를 탄 묘사는 이례적이다. 정황상 두 사람은 카라칼라와 게타로 추정된다.[166] 그러나 파르티아 원정 당시 카라칼라와 게타의 나이는 각각 10, 9살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전투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167] 따라서 이는 개인의 실력과 공이 아닌 혈통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9] 세베루스 개선문 개선식 부조[168]

---

165) 로마시의 카피톨리움 3신(capitoline triad) 대신 세베루스와 그의 두 아들의 흉상이 놓이게 된 것이 전조라고 할 수 있다. 렙시스 마그나의 또 다른 건축인 테트라필론(tetrapylon) 부조의 세베루스와 카라칼라의 '오른손 잡기(dextrarum iunctio)'장면 역시 마찬가지다.(Lusnia, p. 90.)

166) 왼편에 있는 게타의 얼굴이 특히 많이 훼손된 것은 카라칼라 제위 시 게타가 기록말살형에 처해진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67) 두 아들과 함께하는 표상은 희생제 기념주화에서도 나타난다. '정화(suffimenta)' 의례를 표현한 장면에서 앞서 아우구스투스나 도미티아누스와 달리 제물을 받는 인물이 3명이다. 이는 204년 당시 공동 황제로서 카라칼라와 게타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Rowan, p. 62.)

168) 이미지 출처 : http://www.livius.org/a/libya/lepcis_magna/arch_severus/arch_severus_nw_frieze_2.jpg.

세베루스가 치세 안정기부터 자신을 표상하기 위해 선택한 유피테르 이미지 역시 왕조의 확립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다음의 [그림 10]은 렙시스 마그나 개선문의 부조다.

[그림 10] 세베루스 개선문 세베루스와 율리아 돔나 부조[169]

부조에서 세베루스와 율리아 돔나는 각각 유피테르와 그의 아내 유노로 형상화되었다. 보존상태가 좋진 않지만 오른쪽 의자에 앉은 세베루스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천둥과 홀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의자 아래 오른편에는 독수리 조각이, 그 오른쪽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미네르바가 서있다. 이를 통해 유피테르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왼편에 선 율리아 돔나 역시 왼편 아래에는 유노와 관련된 앵무새가 있고, 그 옆에 풍요의 뿔을 들고 있는 포르투나(Fortuna)가 서있다.[170]

169) 이미지 출처 : http://www.livius.org/le-lh/lepcis_magna/arch_severus4.html.

170) Marsden은 세베루스 황조 시대 조각에서 정면성(frontality)의 활용과 계층에 따른 인물의 크기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았다. 황제는 점차 주변인들보다 더 크게 그려지고, 렙시스 마그나의 세베루스 개선문에서처럼 주변인물들의 얼굴이 황제를 향해있고, 가운데 황제만 홀로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형태로 그려지곤 한다. 이러한

코르도바나는 살아있는 황제와 가족의 신성화가 시작된 시기가 세베루스 시기라고 보았다.[171] 제정 초기 아우구스투스의 평화의 제단(Ara Pacis)이나 트라야누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기둥(columna), 트라야누스에게 헌정된 베네벤툼(Beneventum)의 개선문 등에서 신이 황제와 구별되는 독립된 객체이자 황제의 보호자로 등장하는 점과 차별화된다.

3) 제호(帝號)로서 '도미누스' 사용의 증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도미나투스체제를 확립할 당시 그는 황제를 칭하는 용어로 '도미누스(Dominus)'를 공식화했다. 노예와의 관계에서 주인을 뜻하는 말에서 비롯된 도미누스는 도미나투스체제에서의 황제를 특징짓는 요소 중 하나였다. 도미누스를 제호로 처음 사용한 것은 도미티아누스로 보이지만[172], 활발하게 등장한 것은 세베루스 집권기였다.[173]

다음 그래프는 69년부터 235년까지 총 575개의 속주지역의 비문을 바탕으로 트라야누스 이후 황제들에게 가장 즐겨 쓰인 '최선자'라는 뜻의 '옵티무스(Optimus)'와 '도미누스'의 수를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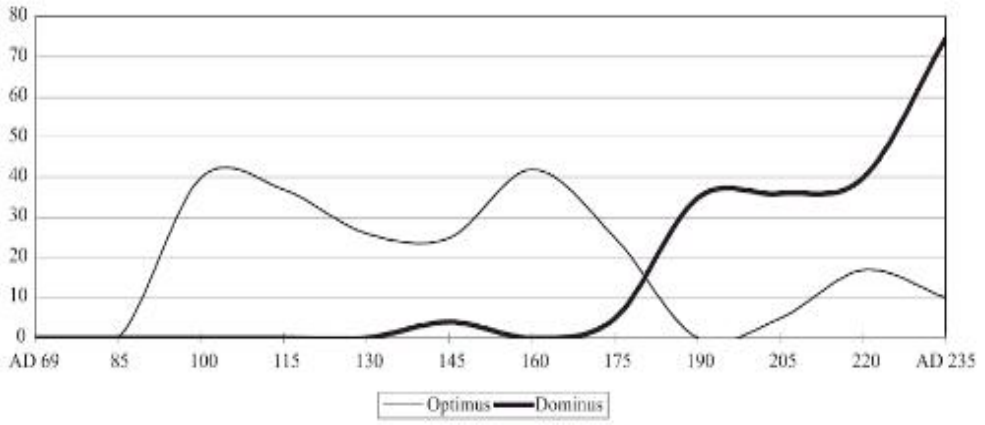
표현양식은 매우 동방적인 특징으로 그룹 중앙의 통치자 이미지를 강조한다. Marsden은 이러한 특징이 세베루스 시기 주화, 메달, 거울 공예 등에서 모두 발견된다고 보았다. (Marsden, p. 1.)

171) Cordovana, p. 75.

172) "pro salute optum[i]/ principis et domini"(*Corpus Inscriptionum Latinarum*, T. Mommsen et al. ed.(Berloini, 1863-1936), 10.444.)

173) 몸젠은 주화 명각을 기준으로 아우렐리우스 시기를 '도미누스' 제호의 공식적 사용의 출발로 보고 있지만, 군대나 속주관련 공문서에 활발히 사용된 것은 세베루스 시기부터였다.(C. F. Noreña, *Imperial ideals in the Roman West : representation, circulation, power*(Cambridge, 2011), p. 375.)

[표 3] 69~235년 속주 비문의 제호 비교



출처 : C. F. Noreña, *Imperial ideals in the Roman West : representation, circulation, power*(Cambridge, 2011), p. 285.

193년 무렵까지 오현제 시대의 제호에는 옵티무스가 전체의 약 40%가 넘을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174] 그러나 190년대를 기점으로 옵티무스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세베루스 재위기에 들어오면 도미누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제호는 그 시대의 정치윤리와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인'을 뜻하는 도미누스는, 프린켑스로서의 황제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 도미누스는 황제를 신에 필적하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와 같이 원로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황제들은 도미누스로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175] 반대로 소위 폭군으로 분류되는 칼리굴라,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 도미누스라 칭했다.[176]

---

174) 기존에 유피테르 신에 한정해서 쓰이던 'Optimus'가 원로원에 의해 처음 공식적으로 황제에게 쓰인 것은 트라야누스 시기이며, 시기는 대략 98년경으로 본다.(Bennett, p. 106.)

175) Suetonius. *Augustus* 5.3.1, *Tiberius* 27; Tacitus. *Annales.* 2.87., 12.11.

176) Aurelius Victor, *liber de Caesaribus.* 13.3, Suetonius, *Domitianus* 13.2; Dio Cassius 72.20.2.

다만 살아있는 황제에 대한 신격화가 익숙했던 동방 지역을 중심으로 속주에서는 도미누스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지만, 살아있는 황제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마시에서 도미누스의 사용은 힘들었다. 로마시에서의 황제의 신격화는 카이사르 사후 제 2차 삼두정이 추진한 것이 최초로, 그나마도 사후 신격화가 원칙이었다. 또한 황제 사후 신격화의 여부는 원로원의 결정 사항이었다. 실제 하드리아누스 사후, 그의 신격화를 거부한 원로원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후임 황제인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제위를 내려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경하게 맞서야 했다.[177] 그래서 세베루스 집권기에도 로마시에서 사적영역을 제외하고[178], 공식문서에서 도미누스가 사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표 3]에서 보이는 것처럼 190년대 이후 속주군단이나 속주에서 공식적 제호로 도미누스의 사용이 폭증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속주군단과 속주민들에게 있어서 이상적 황제상이 성취지위를 강조하는 옵티무스에서 전제적이고 귀속지위를 강조하는 도미누스로 변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79]

속주에서의 황제상에 대한 변화는 제호의 사용뿐 아니라 황제 숭배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한 예로 피쉬윅(D. Fishwick)은 '트레스 갈리아이(tres galiae : Gallia Aquitania, Gallia Lugdunensis, Gallia Belgica)' 지역에서 발견된 황제 숭배 제단에 새겨진 비문 분석을 통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당시 세베루스와 카라칼라에 대한 숭배의 흔적을 발견했다. 여기에 'dominus noster'라는 표현이 흔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황제 숭배에 익숙한 동방뿐 아니라 서방 속주에도 살아있는 황제에 대한 숭배가 받아들여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아직 카이사르였던 게타에 대한 숭배도 이루어졌음이 보여, 카이사르가 성취지위가 아닌

177) Dio Cassius 74.23.3.

178) 로마시에서는 몬테 테스타키오(monte Testaccio)에서 발견된 바티칸 암포라(Vatican ampora)에서 세베루스와 카라칼라를 "dominorum nostrorum(우리들의 주인)" 혹은 "Augg"라고 칭하는 명각이 발견되었다.(Lusnia, p. 206.)

179) 도미누스와 호응하는 의미로 3세기 그리스 비문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제호는 kurios다. 이 칭호는 티베리우스 치세에 그리스 지역에 처음 나타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코모두스 시기에 좀 더 활발하게 등장했으며,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 카라칼라 시대에는 표준이 되었다.(Noreña, p. 287.)

혈통적으로 예비된 황제계승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0]

이렇듯 세베루스가 자신의 집권기 동안 황제 중심의 전제적 지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했음을 이 시기 도상과 제호 등 비문헌 매체들을 통해서도 읽어낼 수 있다. 헤라클레스와 리베르 파테르는 세베루스가 내전과정에서 승리를 기념하고 자신을 표상하기에 적절한 신이었다. 특히 세베루스는 코모두스의 선례처럼 헤라클레스와 살아있는 황제인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나아가 치세 안정기에는 세베루스와 율리아 돔나가 최고신인 유피테르와 유노로 표상되는 대신, 카라칼라가 헤라클레스, 게타가 리베르 파테르의 이미지를 이어받았다. 이는 세베루스-카라칼라-게타로 이어지는 제위 계승 체계가 유피테르-헤라클레스-리베르 파테르의 위계로 신성화됨을 의미한다. 한편 세베루스 시대 이후 속주 지역 비문에서 폭증한 제호 '도미누스'는 속주에서 바라보는 황제상이 '옵티무스'와 비교해 전제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세베루스 시대 황제상은 점차 전제적 군주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180) D. Fishwick, "The Severi and the Provincial Cult of the Three Gauls",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22(4)(1973), pp. 627-649.

3. 속주경영에서의 직접지배 강화

로마제국은 속주경영에 있어서 제국 초부터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했다. 중앙정부에서 총독이 파견되기는 했지만, 그에게 할당된 행정인력 및 관할영역으로 볼 때 총독이 속주행정에 깊숙이 침투하는 것은 힘들었다. 그래서 속주의회와 속주 내 상류층을 통한 간접지배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간접지배의 속주경영방식은 4세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속주를 재편하고, 관료체계 정비와 함께 관리수를 크게 증대하면서 중앙집권적으로 정비되었다.

18세기 몽테스키외나 20세기 초의 로스토프체프 등의 학자들은 4세기 국가의 강압성이 로마제국의 사회경제를 경직시키고, 쇠퇴를 초래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3세기 위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2세기 말부터 나타난 경제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로마제국이 이후 몇 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직접지배 경향이 디오클레티아누스 집권 이전 3세기 무렵부터 이미 나타났다고 보았다.

한 예로 루셰(C. Roueché)는 3세기 초반 소아시아의 아프로디시아스(Aphrodisias) 극장에 새로운 단상이나 발코니가 추가된 것에서, 속주행사에 새롭게 등장한 중요인사가 있음을 주목했다. 그리고 이 신진인물이 알렉산더 세베루스(Marcus Aurelius Severus Alexander, 재위 222~235년) 시대 프리스쿠스(Sulpicius Priscus)가 아프로디시아스 속주에 보낸 편지를 근거로 징세와 관련된 중앙관리일 것으로 추정했다.[181] 루셰는 또한 이미 3세기 경 속주 여러 곳에서 개인의 기부에 의한 공공건물 건축이 현저히 줄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 헌정이 속주 내의 중앙관리에게 돌아갔음을 밝혔다.[182] 이러한 경향은 제정 초기에 속주 내 지위 유지를 위해 공공건물 건축에 활발하게 참여하던 속주지배층의 경제적 쇠퇴를 반영함과 동시에 속주 내 중앙관리의 위상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

181) C. Roueché, “A New Inscription from Aphrodisias and the Title ‘pater tes Poleos’”, *Roman and Byzantine Studies* 20(2)(1979), pp. 173-185.
182) *Ibid,* p. 173.

주이더홐 역시 중앙정부의 속주에 대한 직접지배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점을 3세기 초반 세베루스조라고 보았다.[183] 한 예로 세베루스는 코모두스 집권기에 중단되었던 복지정책인 알리멘타(alimenta)[184]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특기할 것은 기존에 속주시의회가 맡던 알리멘타의 관리를 중앙행정관에게 맡긴 것이다.[185] 또한 시의회가 중앙관리의 분명한 허가 없이 통행세나 시장세와 같은 지방간접세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186]

한편 세베루스는 내전 후에 브리타니아를 2개 속주(Britannia Superior, Britannia Inferior)로[187], 198년에 시리아를 2개 속주(Syria Magna, Syria Phoenice)로 분할했다.[188] 물론 여기에는 니게르와 알비누스에 대한 보복이자, 강한 군단을 배경으로 황제를 자처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189] 하지만 이후에 내전과 관련이 없는 아프리카속주를 분할하고 누미디아의 지위를 격상시킨 것은 내전수습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190] 내전 직후부터 카라칼라 치세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속주분할은 행정에서의 중앙집권화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세베루스의 민생안정과 속주 직접지배의 강화를 확인할 수 있는 또

---

183) Zuiderhoek, p. 41.

184) 알리멘타는 네르바 시대에 시작하여, 트라야누스 치세에 확대되었다. 이탈리아의 가난한 농촌가정의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아동 수당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였다. 대체로 알리멘타의 자금 관리는 지방자치체에서 담당하였다.(김상엽, 「서기 2세기 로마제국의 알리멘타(alimenta) 프로그램」, 『역사와 담론』 54(2009), pp. 185-203. 참조.)

185) *Digest.* 35.2.89.

186) C*odex Iustinianus* 4.62.1.

187) Herodianus 3.8.2, 하지만 최근에는 비문(*Corpus Inscriptionum Latinarum,* 7.210, 273) 등을 근거로 헤로디아누스가 알비누스와의 내전 직후 브리타니아를 분할했다고 기술한 것은 오류이며, 211-220년경으로 추정한다.(Herodianus 3.8.2; Southern, p.37.)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세베루스 시대의 경향이 세베루스조 전반에 이어지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188) F. Millar, *The Roman Near East, 31 B.C.- 337(*Cambridge, 1993), pp. 121-123.

189) Ceuleneer, p. 244; Southern, p. 37.

190) Haywood는 이를 군사적 방어목적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단순히 군단수의 증가가 아닌 속주분할책을 택한 것은 군사적 목적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R. M. Haywood, “The Africa Policy of Septimius Severu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71(1940), p. 177.)

다른 정책으로 군대와 근위대정책이 있다. 세베루스의 군대정책에 대해, 기존 연구에는 정권유지 및 군인충원의 시각에서 분석해왔다. 하지만 군대개혁으로 초래되는 영향을 고려하면 속주 민생안정의 목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세베루스는 제위에 오르자마자 근위대 개혁에 착수했다. 두 명의 황제를 암살하고 제위를 유린한 근위대에 대한 단죄는 선결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근위대 개혁은 앞서 원로원정책과 마찬가지로 보복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의 근위대 정책은 상기한 트라야누스의 조치와 비교해볼 수 있다. 트라야누스는 집권 직후, 전임황제 네르바를 납치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던 근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에 곧바로 입성하지 않고 근위대장을 자신의 임지로 불러들여 처형했다. 이것이 트라야누스가 잘못된 지휘로 권력을 남용한 근위대에 내리는 처벌이었다. 그런데 세베루스는 근위대 전원을 무장 해제시켜 로마시 밖으로 추방시켜버림으로써 기존의 근위대를 완전히 해산시킴과 동시에 정치경력을 단절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근위대를 판노니아와 일리리아 출신의 자신의 군단병으로 충원했다.[191]

세베루스의 근위대 개편은 또한 앞서 비텔리우스의 선례와 비교된다. 비텔리우스 역시 황제를 위협한 기존의 근위대를 해산하고 자신의 기반인 게르마니아 주둔군 및 보조군에서 1000명을 선발하여 새로운 근위대를 창설했다. 하지만 비텔리우스의 근위대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역할이나 특권에서 근본적인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베루스의 근위대 정책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으로 확립되었으며, 근위대의 속성자체를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텔리우스의 방식과 차이가 있다.

제정 초부터 황제의 근위대는 이탈리아와 로마화된 일부 서방지역에서 충원하던 것이 전통이었다.[192] 그래서 속주군단병들로 근위대가 재편

191) Herodianus 2.13.10; Dio Cassius 75.1.1;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Severus* 6.11.

192) 근위대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출신이며, 그 외 라티움(Latium), 움부리아(Umburia), 에트루리아(Etruria) 및 키살피나 갈리아(Cisalpina Gallia) 등이었다.(Tacius, *Annales,* 4.5; 조영식, pp. 210-211.)

되자 디오를 비롯한 당대인들은 세베루스로 인해 로마군이 야만화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세베루스 시기 군대정책이 야만화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은 근대 역사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1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베루스는 집권초기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근위대 충원방식을 속주군단병 중에서 출중한 자들로 선발하는 것으로 제도화했다.[194] 선발자격과 관계진출에서 차별화되던 근위대의 승진방식이 속주군단과 일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속주출신의 군단병이라도 근위대를 거쳐 백인대장까지 승진하여 신분상승을 노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점은 근위대의 행정과 사법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속주민들이 중앙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확대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또한 기존에 근위대가 속주군단병에 비해 근무기간이나 처우에서 받는 특혜로 속주군단병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속주군단에서 근위대를 충원하는 방식은 속주군단병들의 사기진작 및 근위대의 전투력과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로써 근위대는 이탈리아지역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특권층이 아니라,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군대 편제의 위계에서 속주군단의 상위에 있음으로써, 제국전체의 대표부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한편 세베루스는 군인들의 월급을 인상하고,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속주군단병의 결혼을 허용했다. 또한 기사계층에게만 허용되던 금반지 착용 자격을 부여하고, 군단 내 클럽 등을 운영하여 군인들의 여가를 개선시켰다.[195] 군인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 디오와 몸젠, 기번을 비롯한 전통적인 역사가들은 군인들의 환심을 얻어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며, 이로 인해 군인들이 나태해지고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비난했

193) 앞서 기번은 이미 세베루스의 군대정책이 제국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했으며, Domaszewski는 세베루스 시기 군대의 야만화를 본격적으로 밝히고자 했다.(A. von. Domaszewski, "Die Rangordnung des römischen Heeres" *Bonner Jahrbücher* 117(1908), pp. 1-196.) Hasebroek 역시 그와 같은 시각을 가졌다.(J. H Hasebroek, *Untersuchungen ur Geschichte de Kaisers Septimius Severus*, (Heidelberg, 1921)(신상화, p. 75. 재인용.) 본고에서는 야만화가 아닌 친속주정책으로서 세베루스의 군대정책을 바라보고 있으나, 세베루스 시기 군대에서 속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194) Dio Cassius 75.1.1.

195) Dio Cassius 72.2.1-2.

다. 하지만 세베루스의 앞서 살펴본 다른 정책들의 방향을 고려할 때, 속주군단의 처우개선 역시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로마 원로원이 속주상류층의 대변인이라면, 속주군단은 속주의 일반민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전역하기까지 결혼도 할 수 없고, 변방에서 지내야하며, 물가상승에 비해 봉급도 낮은 속주군단병이 로마화된 도시민들을 유인할 만한 요소는 적었다. 속주군단이 2세기부터 토착민들로 충원되면서 로마시민보다는 가난한 속주농민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디오는 세베루스 시기 근위대 병사들이 라틴어를 하지 못한다고 경멸하기도 했는데,[196] 이 역시 당시 근위대가 속주군단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출신이 라틴어나 그리스어가 상용화된 도시나 속주상류층이 아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2세기 말에 로마제국은 인구감소와 변경위기 등의 요인들이 겹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탈리아가 가졌던 제국초기의 우월한 지위도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상대적인 쇠퇴와 속주의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오현제 시대부터 두드러진 친(親)속주정책이 일반적인 속주의 지배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스출신 원로원의원이던 디오가 이미 이탈리아 분할안을 제시한 것처럼 이탈리아와 속주지역의 일원화된 제국지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세베루스 사후 212년에 카라칼라가 '안토니누스 칙령(Constitutio Antoniana)'을 통해 로마시민권을 제국전체로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디오는 이것이 속주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속세 등의 세금수입 증가를 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카라칼라 시기에도 여전했던 국가재정 문제를 생각하면 정당한 추론이다. 하지만 카라칼라가 제위에 오른 직후에 이러한 법령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속주민들이 로마제국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베루스 집권기에 나타난 속주의 민생안정책과 직접지배 경향, 군대여건 개선책, 그리고 제국지배 전반에서 나타난 이탈리아와 속주의 차별완화 정책들은 2세기 말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내전과정에서 두

196) Dio Cassius 72.2.5-6.

드러진 속주분열 양상에 대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속주 지배체제로의 변화는 황제 중심의 전제적 지배체제 성립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주지할 것은 속주경영에서의 직접지배 확대 경향이 급진적으로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개혁이라기보다 친속주정책과 함께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경향이 좀 더 가속화된 것이라는 점이다.

Ⅴ. 結語

2세기 말 역병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변경위기 등으로 로마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게다가 코모두스의 암살로 초래된 위기는 제위계승과 관련된 근위대, 원로원, 속주군단의 세 권력축의 갈등을 빚었고 193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된 내전으로 귀결되었다. 내전 과정에서 원로원의 무력함이 표면화되고, 근위대의 월권 및 속주군단에 대한 군사적 열세가 드러났다. 세 권력축의 세력균형 와해는 이들의 균형을 토대로 제권을 유지해가던 프린키파투스체제에서의 제위를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193년 내전과정에서 속주들의 주체적 동향이 두드러졌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제어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제정 초부터 이탈리아를 압도해 온 속주의 경제적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연대의식은 내전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2세기 말의 로마제국은 사회경제적 위축과 원로원과 근위대, 속주군단의 세력균형 와해, 속주의 주체적 동향과 분열양상이 가시화되어 기존의 제국운영방식으로는 통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집권하여 이후 반세기 정도의 안정을 유지한 세베루스의 정책은 로마제국의 변화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먼저 세베루스는 이미 코모두스의 암살과 내전과정에서 무력함을 드러낸 원로원 문제를 구성원의 재편이 아닌, 기존 원로원 권력을 다른 기구와 계층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 황제를 추대하고, 전쟁과 공적을 선포하는 등의 전통적인 원로원의 권한들이 속주군단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행정과 사법의 많은 부분은 근위대와 황제자문회의가 담당했으며, 점차 입법권과 군사권 역시 황제자문회의 등 다른 권력기구들과 신진 계층에 이양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즉 세베루스가 정권유지만을 위해 원로원을 약화시켰다기보다는 이미 정치적으로 무력화된 원로원을 대신하여 근위대와 황제자문회의의 역할을 강화시키면서 황제 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황제 중심체제에 어울리는 황제상을 동방의 전제적인 황제상

과 유사하게 구축하고, 이와 관련해 혈통적 제위계승방식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리하여 혈통적 제위승계에 따른 위계를 헤라클레스-리베르파테르-유피테르로 이어지는 신들의 위계와 연결시켜 살아있는 황제와 황가의 신격화를 표방하였다. 속주와 속주군단을 중심으로 공식적 제호로서 도미누스의 활발한 사용은 새로운 황제상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193년 내전과정에서 속주도시들의 동향에서 드러났듯, 속주의 민생안정과 통합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베루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지배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세베루스는 큰 속주들을 분할하고, 재정과 관련된 중앙정부 관리의 파견을 증가시켰다. 속주상류층에 의해 발생하는 징수과정에서의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알리멘타의 재개도 징세제도의 기반인 민생안정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강화된 면이 주목된다. 또한 기존에 정권유지 혹은 군사적 관점에서 분석되던 근위대와 군대정책 역시 민생안정과 속주통합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근위대와 속주군단의 일원적 위계 확립을 통해 대부분 속주민으로 이루어진 속주군단병이 중앙권력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며, 전반적인 군대 처우 개선책은 당시 속주출신 군단병이 늘어났음을 고려하면 민생안정에도 직결되는 정책들이었다.

세베루스 정책들에 나타난 그의 제국운영 방향은 제국 초 프린키파투스체제의 이상이 아닌 4세기 도미나투스체제에 가깝다. 즉 세베루스의 시대는 프린키파투스체제에서 도미나투스체제로 제국운영방식이 변모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세베루스의 지배체제를 완전한 도미나투스체제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크게 약화되었지만 원로원이 실재했고, 황제와 황가의 신격화 역시 공식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 은근한 형태로 시도되었다. 속주지배에 있어서 중앙집권화 경향은 보이지만, 4세기와 같은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프린키파투스체제에서 도미나투스체제로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로마제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들과 맞물려 2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경

향들이 점차 4세기에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미나투스 체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완전히 확립된 것이 아니라, 이후 콘스탄티누스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이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193년의 위기와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세베루스의 정책 역시 도미나투스체제로 변해가는 거대한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로마제국의 체제 변화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베루스의 정책과 그의 시대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세베루스와 그의 황조에 대한 연구는 오현제 시대나 4세기 황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했고, 세베루스의 시대는 3세기의 정치적 혼란기와 뒤섞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본 연구가 그동안 국내에서 크게 조명되지 못했던 세베루스와 그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가. 1차 자료

Dio Cassius, *Historia Romana,* translated by Cary, 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Herodianus, translated by Whittaker, C. R.,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Scriptores Histroiae Augustae, translated by Magie, D.,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1998.

Inscriptiones Latinae Selectae, edited by Dessau, H., Berolini : Apud Weidmannos, 1892-1916.

Corpus Inscriptionum Latinarum, edited by Mommsen, T. et al., Berloini : Apud Walter de Gruyter et Socios, 1863-1936.

Roman Imperial Coinage 4, edited by Mattingly, H., Sydenham. E. A., London : Spink and Son LTD., 1936.

Coins of the Roman Empire in the British Museum 5, edited by Mattingly, H., Carson., R. A. G., London : British Museum, 1950.

나. 2차 자료

1) 연구서

Bingham, S., *The Praetorian Guard : a history of Rome's elite special forces*, Waco, Texas :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Birley, A. R., *Septimius Severus : The African Emperor*, Hoboken : Taylor and Francis, 2002.

Bowman, A. K., *The Roman agricultural economy : organisation, investment, and produc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Bruun, C., *The Antonine plague and the 'third-century crisis',* Leiden : Brill, 2002.

Burckhardt, J., *The Age of Constantine the Great(1853)*, translated by Hadas, M., New York : Dorset Press, 1989.

Ceuleneer, A de, *Essai sur la vie et le règne de Septime Sévère(1880),* Whitefish, Montana : Kessinger Publishing, 2009.

Crook, J. A., *Consilium principis : imperial councils and counsellors from Augustus to Diocletian,* New York : Arno Press, 1975.

Desnier E. D., *The Making of a Christian Empire: Lactantius & Rome,* Ithaca,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2012.

Duncan-Jones, R., *Money and government in the Roman empir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_____, *The Economy of the Roman Empire : quantitative studi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_____, *Structure and scale in the Roman econom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Erdkamp, P., *A companion to the Roman army,* Malden : Wiley-Blackwell, 2007.

Forsythe, G., *Time in Roman religion : one thousand years of religious history,* New York : Routledge, 2012.

Galinsky, K., *Augustan culture : an interpretive introduction,* Princeton, Chichester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Gibbon, E.,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1737-1794)*, New York : Modern Library, 1990, 김희용, 윤수인 역, 『로마 제국 쇠망사 1』, 민음사, 2008.

Goffart, W., *Caput and Colonate*,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4.

Grant, M., *The Severans : the changed Roman Empire,* London, New York : Routledge, 1996.

Heichelheim, F. M., *History of the Roman People*, New Jersey : Prentice Hall, 1984, 김덕수 역, 『로마사』, 현대지성사, 1999.

Hekster, O., *Rome and its empire, AD 193-284,*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8.

Hekster, O. et al. ed., *Crises and the Roman Empire : proceedings of the Seventh Workshop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Impact of Empire,* Leiden : Brill, 2007.

Katsari, C., *The Roman monetary system : the Eastern provinces from the first to the third century A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Kemezis, A. M., *Greek narratives of the Roman Empire under the Severan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Lendon, J. E., *Empire of honour : the art of government in the Roman worl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Liebeschuetz, J. H. W. G., *Continuity and change in Roman relig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MacMullen, R., *Roman government's response to crisis, A.D. 235-337,*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6, 김창성 역, 『로마제국의 위기 : 235~337년, 로마 정부의 대응』, 한길사, 2012.

Manders, E., *Coining Images of Power : Patterns in the Representation of Roman Emperors on Imperial Coinage, A.D. 193-284*, Leiden : Brill, 2012.

Marcel, L. G., *A history of Rome*, Malden : Blackwell, 2003.

Mennen, I., *Power and Status in the Roman Empire AD 193-284,*

Leiden, Boston : Brill, 2011.

Millar, F., *The Roman Near East, 31 B.C.- 337*,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Mommsen, T., *A history of Rome under the emperors,* translated by Krojzl, C., New York : Routledge, 1996.

Montesquieu C. de, *Considérations sur les causes de la grandeur des Romains, et de leur décadence*, translated by Lowenthal, D., Indianapolis, Cambridge : Hackett, 1999.

Noreña, C. F., *Imperia ideals in the Roman West : representation, circulation, power,*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latnauer, M., *The life and Reign of the Emperor L. Septimius Severus*,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18.

Pollitt, J., *The art of Rome, c. 753 B.C.-A.D. 337 : sources and document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otter, D. S., *The Roman Empire at Bay A.D. 180-395,* London, New York : Routledge, 2004.

Rostovtzeff, M.,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roman empire* Oxford : Clarendon Press, 1926.

Rowan, C., *Under divine auspices : divine ideology and the visualisation of imperial power in the Severan period,* Cambrid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Scheidel, W., *The ancient economy,* New York : Routledge, 2002.

Scott, S., *Roman imperialism and provincial ar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Sear, D. R., *Roman coins and their values* 3, London : Spink, 2000.

Southern P., *The Roman Empire from Severus to Constantine*, London, New York : Routledge, 2001.

Strobel, K., *Das Imperium Romanum im "3. Jahrhundert"*, Stuttgart : F. Steiner, 1993.

Susann S. L., *Creating Severan Rome : the architecture and self-image of L. Septimius Severus (A.D. 193-211),* Bruxelles : Latomus, 2014.

Swain, S., *Severan culture,* Cambrid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Talbert, R. J. A., *The Senate of Imperial Rom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Vittinghoff, F., *Stadt und Herrschaft, Römische Kaiserzeit und Hohes Mittelatlter,* München :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1982.

Watson, G. R., *The Roman soldier*,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69.

Wells, C. M., *The Roman Empir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Williams, S., *Diocletian and the Roman recovery,* New York, London : Routledge, 1996.

Zelener, Y., *Smallpox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Roman Economy After 165 AD,*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2003.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 길, 2013.

허승일 외, 『로마 제정사 연구』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 연구논문

Alston, R., “Roman military pay from Caesar to Diocletian”, *Journal of Roman Studies* 8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113-123.

Appelbaum, A., “Another look at the assassination of Pertinax and the accession of Julianus”, *Classical Philology* 102(2), 2007,

pp. 198-207.

Asante, M. K., "Rediscovering the Lost Romna Caesar: Septimius Severus the Afirican and Eurocentric Historiography", *Journal of Black Studies* 40(4), 2010, pp. 606-618.

Baharal, D., "Portraits of the Emperor L. Septimius Severus (193-211 A.D.) as an Expression of his Propaganda", *Latomus* 48, 1989, pp. 566-580.

Barnes, T. D., "The Family and Career of Septimius Severus", *Historia :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16(1), 1967, pp. 87-107.

_____ , "The Composition of Cassius Dio's "Roman History"", *Phoenix* 38(3), 1984, pp. 240-255.

Blois, L. de, "The Third Century Crisis and the Greek Elite in the Roman Empire",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33(3), 1984, pp. 358-377.

Brenot, C., "La famille de Septime-Sévère à travers les images monétaires", *Cahiers du Centre Gustave Glotz* 11(1), 2000, pp. 331-345.

Bruun, C,. "The Antonine plague in Rome and Ostia", *Journal of Roman Archaeology* 16, 2003, pp. 426-434.

Cameron, A., "The perception of crisis", *Settimane di studio del centro itlaliano sul' alto medioevo* 45, 1998, pp. 9-31.

Cherry, D., "The marriage of equestrian officers in the post-severan army", *Historia: Zeitschrift fur Alte Geschichte* 46(1), 1997, pp. 113-116.

Cordovana, O. P., "Between History and Myth: Septimius Severus and Leptis Magna", *Greece and Rome* 59(1), 2012, pp. 56-75.

Daguet-Gagey, A., "Septime Sévère et ses fils, Restitutores Vrbis: la personnalisation des mérites impériaux", *Revue*

numismatique 6(160), 2004, pp. 175-199.

Dmitriev, S., "'Good Emperors' and Emperors of the Third Century", *Hermes* 132(2), 2004, pp. 211-224.

Duncan-Jones R., "The Impact of the Antonine Plague", *Journal of Roman Archaeology* 9, 1996, pp. 108-136.

Fishwick, D., "The Severi and the Provincial Cult of the Three Gauls",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22(4), 1973, pp. 627-649.

Garnsey, P., "Septimius Severus and the marriage of soldiers", *California Studies in Classical Antiquity* 3, 1970, pp. 45-53.

Gilliam, J. F., "The Plague under Marcus Aureliu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82(3), 1961, pp. 225-251.

Glay, M. L., "L'administration centrale de la province de Numidie de Septime Sévère à Gallien ", *Antiquités africaines* 18(1), 1991, pp. 83-92.

Gorrie, C., "Julia Domna's building patronage, imperial family roles and the Severan revival of moral legislation", *Historia: Zeitschrift fur Alte Geschichte* 53(1), 2004, pp. 1-17.

_____, "The Restoration of the Porticus Octaviae and Severan Imperial Policy", *Greece and Rome* 54(1), 2007, pp. 1-17.

Hammond, M., "Composition of the Senate, A.D. 68-235",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47(1/2), 1957, pp. 74-81.

_____., "Septimius Severus, Roman Bureaucrat",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51, 1940, pp. 137-173.

Haywood, R. M., "The African Policy of Septimius Severu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71, 1940, pp. 175-185.

Hopkins, K., "Taxes and Trade in the Roman Empire",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70, 1980, pp. 101-125.

Jarrett, M. G., “The African contribution to the imperial equestrian service”, *Historia: Zeitschrift fur Alte Geschichte* 12(2), 1963, pp. 209-226.

Lewis, N., “The Humane Legislation of Septimius Severus”, *Historia :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45(1), 1996, pp. 104-113.

Littman, R J, Littman, M L, “Galen and the Antonine plagu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94(3), 1973, pp. 243-255.

Lusnia, S. S., “Julia Domna's coinage and Severan dynastic propaganda”, *Latomus* 54, 1995, pp. 119-140.

Marsden, A. B., “Between Principate and Dominate: Imperial Styles Under the Severan Dynasty and the Divine Iconography of the Imperial House on Coins, Medallions, and Engraved”, *Journal of the British Archaeological Association* 150(1), 1997, pp. 1-16.

Mattingly, H., “The coinage of Septimius Severus and his times”, *The Numismatic Chronicle and Journal of the Royal Numismatic Society* 12(47), 1932, pp. 177-198.

Meulder, M., “De quelques présages qui concernent Septime Sévère”,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77(1), 1999, pp. 137-149.

Mortimer, G. R. “Second Thoughts on the Imperial Succession from Nerva to Commodu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67, 1936, pp. 47-54.

Moscovich, M. J., “Cassius Dio's Palace Sources for the Reign of Septimius Severus”, *Historia :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53(3), 2004, pp. 356-368.

Roos, A. G., “Herodianus's Method of Composition”, *The Journal of Romna Studies* 5, 1915, pp. 191-202.

Roueché, C., “A New Inscription from Aphrodisias and the Title

"pater tes Poleos"", *Roman and Byzantine Studies* 20(2), 1979, pp. 173 - 185.

Rybicki, R. W., "Deux représentations de Septime Sévére", *Archaeologia Polona* 45, 1973, pp. 371-378.

Silver, M., "The plague under Commodus as and unintended consequence of Roman grain market regulation", *The Classical World* 105(2), 2012, pp. 199-225.

Smith, R. E., "The Army Reforms of Septimius Severus", *Historia :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21(3), 1972, pp. 481-500.

Stephens, G. R., "A Severan Vexillation at Ribchester", *Britannia* 18, 1987, pp. 239-242.

Zuiderhoek, A., "Government centralization in late second and third century A.D. Asia minor: a working hypothesis", *The Classical World* 103(1), 2009, pp. 39-51.

Whittaker, C. R., "Agri Deserti", Finley M. I. ed., *Studies in Roman Property(*Cambridge, 1976), pp. 137-138.

고경주, 「소 플리니우스와 프린켑스 정치 인식」, 『서양고전학연구』 50, 2013, pp. 133-160.

김경현, 「서양고대세계의 개인숭배」, 『서양고대사연구』 26, 2010, pp. 105-144.

_____, 「로마제국의 흥망」, 『서양고대사연구』 33, 2012, pp. 33-96.

_____, 「안토니누스 역병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서양고대사연구』 37, 2014, pp. 133-168.

_____,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제국의 지배원리」, 『역사학보』 217, 2013, pp. 3-36.

김덕수, 「아우구스투스의 체제강화와 원로원의 위상」, 『서양사론』 50, 1996, pp. 1-45.

김상엽, 「서기 2세기 로마제국의 알리멘타(alimenta) 프로그램」, 『역

사와 담론』 54, 2009, pp. 185-203.
_____, 「Concilium Principis와 프린키파투스 체제의 관계」, 『역사와 담론』 72, 2014, pp. 201-225.
김창성, 「로마의 속주지배와 징세 청부」, 『서양고대사연구』 35, 2013, pp. 141-173.
신상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의 군대개혁」, 『서양고전학연구』 3, 1989, pp. 73-123.
이지은, 「로마제정 초기의 황제숭배」, 『서양고대사연구』 25, 2009, pp. 217-250.
장세용, 「몽테스키외의 「로마성쇠원인론」과 역사인식」,『서양사론』 45, 1995, pp. 55-99.
정기문, 「로마제정의 조세제도 정비와 그 한계」, 『서양고전학연구』 14, 1999, pp. 217-240.
_____, 「후기로마제국은 쇠퇴와 몰락의 시기였는가?」, 『서양고전학연구』 13, 1999, pp. 277-300.
조영식, 「로마 황제 근위대의 역할과 위상」, 『군사』 72, 2009, pp. 199-229.
차전환, 「로마 제국의 중앙과 지방」, 『서양사론』 86, 2005, pp. 5-34.

Abstract

The Crisis of the late Second Century in the Roman Empire and the elements of *Dominatus* in Septimius Severus' policies

Choi, Yunje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ptimius Severus and his imperial dynasty were situated between the period of stability under the Five Good Emperors and the period of confusion under the barracks emperors. Consequently, evaluation of him has differed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n the 3rd-4th centuries. Edward Gibbon's assessment in the 18th century that Severus' policies on the Senate and the military had brought about the era of soldier emperors was dominant for a considerable time afterwards. Since the 1970s, however, approaches to Severus have been made from new perspective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archeology and research on diverse non-documentary materials. The reevaluation of the Crisis of the Third Century conducted in the same period, too, has affected this tendency.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Roman Empire in the late 2nd century; assassination of Commodus; disintegration of the balance of power among the Senate, Imperial Praetorian Guard, and provincial legions, which became visible during the civil war in 193 AD; and provincial cities' independent trends and patterns of division, which became noticeable during the civil war—these were the crises that Severus faced immediately after seizing power.

The present study sees Severus' policy of weakening the Senate as emerging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he power of the Senate, which had already revealed its political incompetence during the period of confusion in the late 2nd century, to the *Consilium Principis* and the Imperial Praetorian Guard and constructing an emperor-centered ruling system. It examines Severus' image policy, which he implemented in this process in order to strengthen imperial power and to stabilize the hereditary succession system. His tendency toward direct rule in provincial management likewise reflected the growth of the provinces, which had occurred during the civil war, and aimed at overcoming the crisis in state finance.

Through such examinations, the present study seeks to elucidate that Severus' policies were responses to the changed socio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Roman Empire in the late 2nd century and the autocratic characteristics that surfaced in this process served as one background of the subsequent establishment of the Dominate in the 4th century.

keywords : Septimius Severus, the civil war in 193 A.D., the Crisis of the Third Century, Severus' policies

Student Number **: 2009-23408**